

천하절서를 앞서 근심하고, 뒤미처 즐기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하영선 편



EAI
동아시아연구원

목 차

답사일정표		2
청의 얼굴 서태후, 그 천의 얼굴 _이화원	① 허수진	4
마오쩌둥의 1960 년대와 미중데탕트 _마오쩌둥 주석 기념당	② 강애리	30
18C 박제가가 바라본 청나라와 조선 _유리창	③ 정지원	53
역사를 통해 중국의 자부심을 엿보다 _중국 국가 박물관	④ 이인우	70
북벌정책의 실현과 좌절 _자금성	⑤ 장도경	83
마오쩌둥의 전략과 마음 사이 _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⑥ 장지영	103
“Perfect Brightness” _원명원	⑦ 정수연	153

답사일정표

6 월 26 일(수)

09:20	김포공항 출국
11:00	베이징 도착
12:30 ~ 13:30	점심식사
14:00 ~ 15:30	원명원
16:00 ~ 18:00	이화원

6 월 27 일(목)

09:00 ~ 10:00	마오쩌둥 기념당
10:30 ~ 11:30	유리창
12:00 ~ 13:30	점심
14:30 ~ 15:30	중국국가박물관

6 월 28 일(금)

08:30 ~ 10:30	자금성
11:30 ~ 12:30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13:30 ~ 15:30	점심 및 798 예술구
18:45	베이징 출국
21:50	인천공항 귀국

EAI 사랑방

미래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 년에 시작한 EAI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청의 얼굴 서태후, 그 천의 얼굴 _이화원

허수진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원명원 미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이화원에 도착하니 호수의 물결을 머금은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고, 덕분에 악명 높은 북경의 더위가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무리한 보수 공사를 강행해서라도 이화원에서 여름을 나고자 했던 서태후의 마음이 피부에 와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쿤밍호 옆으로 길게 뻗은 장랑(long corridor)에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지붕이 드리워져 있는데, 천장은 서양풍의 원명원과 달리 중국의 고전, 신화, 그리고 나라 곳곳의 자연 경관이 담긴 그림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적당한 곳 한켠에 자리를 잡아서 지적 연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연애든 상대방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닿고자 노력했다면 그 내용은 절절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실패로 끝난 연애의 기록을 이 지면을 빌어
담담히 옮겨 적어 보려고 합니다.

서태후는 남편 함풍제의 서거 이후 황제 자리에 오른 아들
동치제의 섭정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하지만 동치제 역시 스무 살에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동치제의 부인인 가순황후가 황태후가 되고 그의
후계자를 양자로 삼는 것이 온당한 절차였으나, 서태후는 조카
재침(이후 광서제)을 본인의 아들로 삼아 수렴청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묘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치제 집권 당시 섭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훌륭한
퍼포먼스 혹은 “연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서태후의 계속되는
집권이 큰 반대를 겪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Chang 2013: 114).

1889 년 성인이 된 광서제가 결혼식을 올렸고, 섭정에서 물러난
서태후는 이화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자금성 서쪽에 위치한
중난하이에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이후에는 해군 예산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곳
이화원에서 은퇴기를 보냈지요. 그러나 장용은 알려진 이화원의
보수비용이 과장된 면이 있고, 실제로는 그 규모가 광서제의 결혼식
비용과 비슷한 정도였다고 설명합니다(Chang 2013: 160).



▲ 그림 1 이화원의 장랑

서태후는 짧은 은퇴기를 뒤로 하고 1898년 9월 21일 Kangyuei의 주도로 이루어진 변법개혁에 제동을 걸면서 세 번째 섭정으로 정치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태후는 1861년부터 1908년까지 약 반세기 가까이 청 왕조의 실질적인 권력자로 군림했는데, 황후가 제국을 이끄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에 여성학적 관점에서 서태후는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빅토리아 여왕과의 비교 연구나 서태후의 여성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Liu 2004: Pang 2005) 저는 서태후를 여성의 틀 안에서 다루기보다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먼저 알아보고픈 마음이 컸습니다.

서태후의 정치적 위치 찾기

수많은 초상화와 사진을 남긴 천의 얼굴 서태후는 보기에 따라 전혀 반대의 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얼굴을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전해졌겠지만, 지적 연애에 서툰 저는 그 마음을 읽기 위해 여러 징검다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인물 자체가 워낙 입체적이기도 했으나, 서태후를 바라보는 상황과 그에 따른 해석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였기 때문입니다.

서태후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중국 번영을 위한 근대화를 방해한 인물로 그려져 온 전통에 연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트레버 로퍼 교수에 의해 상당한 내용이 조작되었다고 밝혀진 백하우스와 블랜드의 저서를 비롯하여 20 세기 초 오리엔탈리즘의 성격을 띠는 서양인들의 저술 활동, 그리고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 서태후 암살에 실패하면서 해외에서 주로 활동한 급진 개혁파의 적극적인 언론 공세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Trevor-Roper: 1977, Bland and Backhouse 1914, Chung 1976: 109, Seagrave 1992: 263-72).

이와 대조적으로 당시 서태후에 가해진 비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서태후 측근들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Der Ling 1931; Conger 1909; Carl 1907; Headland 1909). 시그레이브는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다루어진 위의 기록들과 백하우스의 미출간 일기 등의 자료를 통해 서태후 연구를 보완하였으며(Seagrave 1993:13), 수정주의 경향의

연구들 역시 서태후의 이미지를 새롭게 조망했습니다. 장용과 정은 서태후를 중국 근대화의 주역으로까지 여겼는데, 청 군대의 근대화 등 제도적 개혁을 통해 청을 중세에서 근대국가로 이끈 서태후에 가해지는 비판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Chang 2013:339, Chung 1979).



▲ 그림 2 이화원의 쿤밍호. 서태후는 쿤밍호에 주둔한 군대를 유지하는 명목으로 해군 예산을 이화원 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통적인 역사기술에서 서태후는 봉건제도의 지배층에 속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농민들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예컨대 1976 년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그녀가 소유했던 사치품에 대한 전시회가 열렸는데, “자희의 죄”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전시는 외국의 제국주의자들에 아첨한 서태후의 잘못을 주제로 했습니다(Li and Zurndorfer 2012: 9). 기존의 공산주의 서사가 “진보”에 초점을 맞추고 청 말기를 평가했다면 1980 년대 이후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변화는 역사기술에 새로운 흐름을 가지고 왔고, 중국 역사 전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전통의 이해를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서태후는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한 인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Li and Zurndorfer 2012: 14).

장융의 주장처럼 실제로 질서의 변화에 직면한 청 왕조는 제도적으로 큰 진통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861 년 3 월 외교 업무를 담당한 총리각국사무아문이 설립되었으며 1870 년대에는 처음으로 외교 사절단을 구성하여 해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보를 통해 청 왕조는 서구의 근대적인 외교 체제를 수용했다고 여겨집니다(Zhou 2007: 447). 물론 청일전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군사적 갈등을 통해 서구 국가들을 조공 국가로 다룰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천하질서 내에서 중국이 강할 때 외교사절은 천자의 위신을 보다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세력이 약할 때에는 평화를 간청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청일전쟁 이후 극도로 약해진 국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구 국가들의 요구대로 외교사절을 보내는 것은 상당히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도 나라가 힘을 되찾고 상대적으로 강해질 때까지 사절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담론이 주를 이루었고, 친서구 세력인 이홍장 역시 해군을 동반하지 않은 외교 사절은 현명하지 않은 처사라고 보았습니다(Hsü 1960: 206). 그러나 1873 년 7 월 29 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네덜란드, 일본 외교 사절이 황제를 알현했고, 결국 청은 서구식의 외교 의례를 따르게 됩니다.

장응은 서태후가 서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를 주장하여 중국 발전을 막았다고 보는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관점에 근거하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는 결국 제도의 변화와 도입이 곧 근대화이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제질서로의 편입을 이끈다는 특정한 목적론적(teleological) 가정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구의 근대국제질서와 천하질서라는 권역의 충돌 차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다시 하나의 청으로 합치는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제도적 차원에 제한된 논의는 천하질서에 깊은 뿌리를 두는 청의 국제정치적 관점이 결락된 반쪽짜리 그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천하질서를 바탕으로 한 청 제국이 유럽에서 기원한 국제정치를 겪는 전파의 경험 속에서 주체적으로 “내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중국 지성사 내에서는 어떤 중국을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보수파, 온건 개혁파, 급진 개혁파로 대별이 가능합니다.

첫째, 보수파는 개혁 세력이 기존의 질서를 전복시키고 중국 문화를 파괴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왕선겸, 엽덕휘 등은 서구 세계의 정치체가 세력에 바탕을 두는 반면 중국의 그것은 인간성과 올바름에 근거를 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왕도에 기반하는 좋은 정치를 주장하는 유교적 전통에 기인합니다(Yeophantong 2013: 336). 보수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국가 이익으로서 당연시하는 부국강병이 서구의 관념으로 인식되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가르침이 서구의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비록 서구가 부국강병할지 몰라도 조화와 통일을 성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De Bary and Lufrano 2000). 그러나 고전주의자인 왕선겸을 비롯하여 보수파는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경우가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 영향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변법 개혁 당시 광서제는 완고파 대신인 강익(剛毅)와 과거제도 개혁을 두고 대립하게 됩니다. 강익은 기존의 팔고문(八股文)을 폐지하고 시책론(試策論)을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광서제에게 서태후의 의견을 물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의 편을 들어주었고, 결국 조서를 반포하여 시책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五月初五日,奉明旨廢八股矣。先是二十九日芝棟折上,上即令樞臣擬旨。是日,京師哗然,傳廢八股,喜色動人,連數日寂然。聞上得芝棟折,即令降旨,剛毅請下部議,上曰:“若下禮部議,彼等必駁我矣。”剛又曰:“此事重大,行之數百年,不可遂廢,請上細思。”上厉聲曰:“汝欲阻撓我耶?”剛乃不敢言。及將散,

剛毅又曰：“此事重大，愿皇上請懿旨”上乃不作聲，既而曰：“可請知”故待初二日詣頤和園請太后懿旨，而至初五日乃降旨。中國史學會 1959: 147-8).

반면 온건 개혁파는 이미 서구를 상당히 위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온건 개혁파의 문제의식은 “왜 그들은 작으나 강하고, 우리는 크지만 약한가”가 핵심이었는데, 그들은 서구와 동등해지는 방법을 찾고자 했지만 천하질서 자체를 문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강”은 방법을 확보하면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장지동은 서구 국가의 세력이 정부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고, 서구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 적절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덕적 행위에 관한 중국의 배움과 세계 사정에 대한 서구의 실천적인 배움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Zhang 1900). 나아가서 중국 내 보수와 진보의 갈등에 대해 장지동은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보수 세력은 마치 삼킬 수 없는 무능력함으로 인해 식욕이 없는 상태와 같다. 진보 세력은 양떼와 같아서 갈림길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실정이다. 보수는 국제적 교류(international intercourse)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진보는 중국사(Chinese affairs)에 있어서 무엇이 급진적인 것인지 알지 못한다(Zhang 1900: 20).

마지막으로, 캉유웨이로 대표되는 급진 개혁파는 송과 명의 전통이 실질적 유용성이나 이득이 되는 어떠한 것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온건 개혁파와는 달리 자강을 위해서는 옛 체제를 떨쳐내고 근대 체제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Kangyuei는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 수 있다면 강해질 기회가 있지만 제한된 변화만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여전히 쇠퇴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당, 원, 명 왕조의 잘못된 흔적으로서 청의 제도가 조상들의 독자적 관념이라기보다는 관료들의 지적 유희와 부패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개혁의 정당성을 찾았습니다. Kangyuei는 중국이 본받을만한 사례로 러시아의 표트르 1 세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꼽기도 했습니다(De Bary and Lufrano 2000).

실제로 서태후가 장지동, 영록 등 온건 개혁파로 대표되는 세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서태후가 온건 개혁파와 뜻을 같이 했다고 보거나, 혹은 국제정치관을 공유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서태후의 국제정치관이 특정 집단의 지지를 받거나, 혹은 특정 이데올로기에 따라 일관적 양상을 보이지 않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1900 년 의화단 운동 당시 서태후가 전쟁을 선포하자 장지동은 다른 지역 대관(viceroy)들과 합의하여 서태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역 자치 차원에서 서구와 전면적으로 군사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역으로 광서제와 급진 개혁파가 항상 뜻을 같이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광서제는 1898 년 9 월 칙령을 통해 Kangyuei가 보국회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Chung 1979: 184). 광의 경우, 광서제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당파의 움직임을 황제가 장려했다기보다는 서태후의 권위를 약화시키고자 했던 몇몇 개인들의 활동이 반복되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에 가까웠다고 분석합니다(Kwong 1984: 66-8).

실제로 비행간(費行簡)의 자희전신록(慈禧傳信錄)에 실린 광서제와 서태후의 대화도 흥미롭습니다. 1898 년 독일이 청에 교오조차조약(膠澳租借條約) 체결을 강요한 당시, 광서제는 울면서 서태후에게 “망국의 왕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태후는 “부강을 가져올 수 있는 개혁과 정책을 펼치십시오. 나는 그것을 억압하지 않을 것입니다 (適德人假細故 攘我膠澳, 舉朝無一策, 帝復泣告后, 謂不欲為亡國之主。后曰：苟可致富強者, 兒自為之, 吾不內制也)”라고 답하였습니다(中國史學會, 1953: 464).

발제 중에는 서태후가 상술한 집단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나아가서 과연 그녀가 뚜렷한 국제정치적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사를 위해 준비했던 보고서에는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통치의 방향성을 고민했던 서태후”라고 적어두었는데, 저는 한 나라를 이끈 서태후가 청의 얼굴로서 서구를 대상으로 나름대로 전면전을 펼쳤기에 당연히 국제정치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가졌으리라 넘겨짚는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후당과 제당파 갈등의 핵심은 궁정 내 권력 정치에 있었고, 뚜렷한 국제정치관을 가지는 것 보다는 세력 유지 차원에서 서구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히려 제도

변화의 연원이 된 부국강병은 그 필요성을 양측 모두 공감하는 상황에서 대립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저는 서태후의 위치를 찾기 위해 청 왕조 내 광서제를 지지하는 제당파와 서태후를 지지하던 후당파의 대립을 새로 읽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험난한 정치적 노정을 지탱한 서태후의 균형력

정치인으로서 서태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왕정 정치를 지속가능하게 한 균형력에 있습니다. 서태후의 정치적 노정은 공친왕, 재풍, 자안태후와의 협력을 통해 함풍제가 향후 섭정을 위해 임명한 여덟 명의 대신을 몰아낸 신유정변(1861)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태후는 섭정 중에도 끊임없이 견제 세력에 직면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왕정 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는 “약점 균형”의 복잡한 게임에서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Hsü 1960: 204-5).

만주인의 청 제국은 서태후의 첫 번째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만주와 한의 갈등적 관계에 주목한 로즈는 서태후가 만주 지배층이 중국 개혁 재건의 방해물로 여겨지는 양상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합니다. 서태후는 청 왕조 세력의 유지를 위해 청 말기 만주와 한족이 융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주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만주와 한의 눈에 띄는 차이를 줄여나가야만 했는데, 이는 까다로운

균형력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Rhoads 2015). 1898 년 백일천하로 끝난 변법개혁 이후 서태후가 한족으로 복수의 대상을 삼고 만주인들을 내부자로, 한족을 외부자로 여긴다는 “내만외한” 소문이 퍼지기도 했으나 서태후는 이를 전적으로 부인했습니다(Rhoads 2015: 71).

둘째, 서태후는 이홍장 등 고위 관료의 세력을 견제하고 균형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치 제도의 변화에서 파생된 서태후의 약점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청 왕조는 태평천국운동(1850-1864) 당시 이를 제압하기 위해 지방군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경제, 군사적 자원에 대한 재량권을 허가하였습니다. 지역 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 경제, 군사 정책의 발전은 한족 출신 고위 관료인 증국번, 이홍장과 같은 인물들이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습니다(Crossley 2014). 특히 이홍장은 회군과 북양함대를 보유하고, 외국인 고문들과도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는 서태후가 이홍장의 능력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의 세력을 두려워했다고 분석합니다(Hsü 1960: 204-5).

셋째, 반-외세 이미지는 서태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서구 세력의 지지를 받는 광서제와의 대립에서도 균형을 찾아야만 했던 서태후는 앞서 살펴본 두 사례만큼 이 균형 게임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반-외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의화단 운동을 지지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화단 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서구 국가의 선교사들이 주도한 철도, 교회, 학교 설립 등이 전통 조직과 충돌하면서 농민들이 외세의 “물질적 침략”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연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갈등이 있을 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지방 관료들은 대부분의 경우 전자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Chang 2013: 260). 의화단 운동이 전통 조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도자를 색출해서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고, 지방 관료들 역시 의화단의 영향력이 확산되는데 큰 제재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에 외국 외교단과 선교사 집단은 적극적으로 항의하였고, 서태후는 친-의화단 성향의 관료들을 해임하고 위안스카이와 북양군대를 산둥으로 보내 반란을 저지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또한 1900 년 2 월에는 직례, 산둥 지방에서 의화단 활동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6 월 20 일에는 독일 외교관이었던 케텔러(Clemens von Ketteler)가 거리에서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다음날 전쟁을 선포한 측은 서구 국가들이 아니라 서태후였습니다. 서태후와 그의 측근들은 의화단이 중국에 거류하던 외국인들과 기독교 확산의 기세를 꺾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동시에 반청 감정을 외세에 대항하는 청에 대한 지지로 바꾸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서태후는 이와 같은 행보를 자신의 유일한 실수로 여겼습니다.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한 경험으로 영어 통역을 맡아 서태후를

보좌했던 유덕령의 기록에 따르면, 시안에서 북경으로 돌아온 서태후는 궁 내에서 의화단 운동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궁을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의화단 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말들이 오고가는지 유덕령에게 종종 물었는데, 그녀의 기록에 남아있는 서태후의 말을 옮겨보면, “...나는 지금까지 꽤 성공적이었으나 의화단 운동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칠 줄은 몰랐다. 이는 살면서 내가 저지른 유일한 실수이다. 의화단을 저지하기 위한 칙령을 발표해야 했으나, 재의(Zaiyi)와 란공(Duke Lan)은 하늘이 해로운 외세를 제거하기 위해 의화단을 보냈다고 주장했다...”고 말합니다(Der Ling 1911: 357).

서태후가 전쟁을 선포하면서 의화단은 합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서태후를 지지하던 장지동을 비롯하여 다수의 지역 대관들은 서태후에게 공격을 멈출 것을 간청하였고, 심지어 난징에서는 새로운 정부를 구상하는 방안까지 논의되었습니다(Chang 2013: 278). 8월 11일 북경이 외세에 함락되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판단한 서태후는 2차 아편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860년 프랑스와 영국군을 피해 예허로 예상치 못한 귀향을 해야 했던 것처럼 1900년 또 다시 자금성을 떠나 시안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이홍장과 위안 스카이는 서태후와 광서제가 부재한 북경에서 8개국과 협약을 작성했고, 협상은 이듬해 9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신축조약으로 인해 청은 39년간 4억 5천만 온스의 은을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에 보상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협약 체결 후 북경으로 돌아온 서태후는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균형력을 추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녀가 남긴 초상화와 사진을 통해 그 노력의 흔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균형 회복 노력의 흔적이 묻어있는 서태후의 얼굴

지난 5 월, 워싱턴에 출장을 다녀오신 하영선 선생님께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아서 새클러(Arthur M. Sackler) 갤러리에서 열린 “자금성의 황후들” 전시회에 서태후의 초상화가 걸려있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으로부터 114 년전 워싱턴의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서 서태후의 초상화가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되었던 것이 떠올랐고, 비록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미국의 눈에 비친 서태후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여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위 전시회는 초상화를 통해 여성을 수동적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타파하고 여성들은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전통에 도전한 모습을 담아냈다는 설명을 제시합니다. 서태후는 의화단 운동 이후 외국인과 기독교 신자들을 죽이는데 동조했다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였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본인의 사진이나 초상화가 선보여졌습니다. 이는 서태후의 허영심의 상징이나 청 왕조의 사치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사진과 초상화

자체는 스러져가는 왕조의 항구적인 상징성,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지하는 드래곤 레이디(Dragon lady)라는 페르소나를 만드는데 동조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우리가 알아본 서태후는 균형을 유지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화단 운동의 결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록 자신의 뜻을 과감히 내세울 때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태후의 균형력은 왕조 정치를 반세기 가까이 지속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서태후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약 일 년간 이화원과 자금성에 머문 칼은 고궁에서의 어느 하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하늘은 금빛을 품었고, 그 빛나는 배경과 대조되는 탐은 검은 운곽을 드리웠다. 아름다운 정적이 모든 것에 스며들었다(Carl 1909: 99).” 그러나 자금성은 그저 조용하기만 한 무풍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외세가 군대로, 그리고 문명표준으로 파도처럼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양면적으로 묘사되는 천의 얼굴 서태후는 균형력을 통해 왕조를 유지하는 단 하나의 청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외교 전략으로 사용된 사진과 초상화는 서태후의 자애로운 이미지가 국제적 명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계산이 포함된 결과였습니다(Dong 2017, Peng 2014: Fang 2006). 실제로 서태후의 초상화는 1905 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호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복지와 번영을 기원한다는 서태후의 메시지를 포함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양국의 친선과 호의를 하나로 모으는 것에 대한

기념비적인 기록으로서 서태후의 초상화가 국가박물관에 걸릴 것이라고 회답하였고, 이는 올해 워싱턴에서 열린 전시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장용은 서태후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서구와 우호관계를 맺을 의지를 초상화에 투영했다고 해석합니다(Chang 2013: 310). 실제로 킵거는 서구에서 서태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세인트 루이스 전시회에 초상화를 선보이자고 제안하였습니다(Conger 1909). 청 내무부는 성용장을 설치하여 서태후의 사진과 그 내용 등을 전문으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Wang 2012: 128). 이러한 변화는 서태후의 국제적 위신과 이미지에도 파급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왕은 오직 국제 규범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만 손상된 위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서태후가 사진과 초상화라는 수단의 유용성을 파악했다고 분석합니다(Wang 2012: 138).



▲ 그림 3 캐서린 칼, 휘베르트 보스, 청 전통 양식의 서태후 초상화를 겹친 모습
(출처: 저자 편집)

나아가서 왕은 대청국의 수장으로서 서태후가 국제 외교와 정치에서 위신을 재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초상화를 이용해서 스스로에 대한 일관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의상, 자세, 장식품 등 작은 변화를 주면서도 반복을 피해서 일관적인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의 크기는 상대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보여졌습니다. 또한 손수건을 들고 있는 사진은 부채를 들고 있는 사진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다고 합니다. 공식 의복을 입고 있는 사진은 국가 수장에게 전달되었고, 부채를 들고 있는 사진은 외교관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영빈관에서 찍은 사진은 마치 공식적으로 알현 과정에 있는 것처럼 의도되어 있는데, 이는 그녀의 권위나 혹은 국가 수장으로서 정당성을 전달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Wang 2012: 142).

비록 저는 무엇이 서태후의 진짜 얼굴인지 아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그녀의 다양한 초상화를 겹쳐보니 사진과 유사한 서태후의 얼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과 사진의 이목구비가 닮아서라기보다는 서태후를 알아가면서 그녀의 눈에 비치는 균형력이라는 하나의 힌트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며

북경 답사 마지막 날, 삼고초궁을 통해 자금성에 입성한 저는 기념품 가게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태후에 관한 책은 자수에 관한 연구와 백하우스의 책을 번역한 “자희외기”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청의 얼굴 서태후 치고는 참으로 소박한 흔적이었습니다.



▲ 재미있는 토론, 그러나 새로운 숙제를 선물해준 12기 사랑방 동기들과 하영선 선생님

동아시아 국가들은 시기만 다를 뿐 서태후처럼 서양 권역에서
몰려오는 파도를 고스란히 겪어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제정치학의 존재론적 고민은 전통천하질서와 근대국제질서가
공존하는 아태질서 건축사에서 지구 어느 곳보다 끈질기게 계속될
것입니다. 어찌면 오늘날 근대로 불리는 개화 그리고 전통의 고민은
서태후 뿐 아니라 한국의 국제정치학도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을지로의 사랑방에서 공부하면서 동아시아 곳곳을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답사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하영선 선생님께서
북경 서우두 공항 한 칸에 전시된 청명상하도를 보여주셨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림은 너무나도 길어서 그 끝이 돌돌 말려있었습니다.
2019 년의 봄과 여름은 끝이 보이지 않던 기나긴 길을 이끌어주신
선생님을 그림처럼 따라 걸어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문헌

Bland, J.O.P. and Backhouse, E. China Under the Empress Dowager.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any, 1914.

Carl, Katharine. With the Empress Dowager of China (New York: The Century Co, 1907)

Chang, Jung. 2013. *Empress Dowager Cixi: The Concubine Who Launched Modern China*. New York: Alfred A. KNOPF.

Chung, Sue Fawn. “The Much Maligned Empress Dowager: A Revisionist Study of the Empress Dowager Tz’u-hsi(1835-1908).” *Modern Asian Studies* 13-2 (April 1979).

Chung, Sue Fawn. “The image of the empress dowager Tz’u Hsi,” in Cohen, Paul A. and Schrecker, John E(eds). *Reform in Nineteenth-Century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Crossley, Pamela. “In the Hornets’ Nest.” *London Review of Books*. 36-8 (April 2014).

Conger, Sarah Pike. *Letters from Chin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empress dowager and the women of China. Chicago: A.C.McClurg&Co, 1909.

- De Bary, Wm. Theodore and Lufrano, Richard. 2000. *Sources of Chinese Tradition. Volume I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r Ling, Two Years in the forbidden city.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31.
- Dong, Lihui. "The Way to be Modern: Empress Dowager Cixi's Portraits of the late Qing Dynast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2017).
- Headland, Isaac Taylor. Court Life in China: The Capital, its officials and people.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9.
- Fang, Shiou-yun. "Images, Ideas and Reality: Empress Dowager Cixi's Self-Image and Western Understandings of Cixi." Pd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lasgow (2006).
- Hsu, Immanuel C.Y. China's entrance into the family of Nations: The Diplomatic Phase, 1858-1880.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Kwong, Luke S.K. A Mosaic of the Hundred Days: Personalities, Politics, and Ideas of 1898.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Li, Yuhang and Zurndorfer, Harriet T. "Rethinking Empress Dowager Cixi through the Production of Art." Nan Nü 14 (2012).

- Liu, Lydia. *The Clash of Empires: The Invention of China in Modern World Making*.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 Pang, Laikan. "Photography, Performance, and the making of Female images in Modern China." *Journal of Women's History* 17-4 (2005).
- Peng, Ying-chen. "Staging Sovereignty: Empress Dowager Cixi (1835-1908) and Late Qing Court Art Produc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14).
- Rhoads, Edward J. M. *Manchus and Han: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1861-1928*.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5.
- Seagrave, Sterling. 1992. *Dragon Lady: The Life and Legend of the Last Empress of China*. New York: ALFRED A. KNOPF.
- Trevor-Roper, Hugh. *Hermit of Peking: The Hidden Life of Sir Edmund Backhouse*. New York: Alfred A.Knopf, 1977.
- Wang, Cheng-hua. "'Going Public': Portraits of the Empress Dowager Cixi, Circa 1904." *Nan Nü* 14 (2012).
- Yeophantong, Pichamon. "Governing the World: China's evolving conceptions of responsibility."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6 (October 2013).

Zhang, Zhidong. China's Only hope: An Appeal.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0.

Zhou, Fangyin. "The Role of Ideational and Material Factors in the
Qing Dynasty Diplomatic Transformation."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 (2007).

[https://www.freersackler.si.edu/exhibition/power-play-chinas-empress-
dowager/](https://www.freersackler.si.edu/exhibition/power-play-chinas-empress-dowager/)(검색일: 2019.07.15).

http://www.chinadaily.com.cn/life/2011-04/28/content_12415115.htm
(검색일: 2019.07.15).

마오쩌둥의 1960 년대와 미중데탕트 _마오쩌둥 주석 기념당

강애리

성균관대학교

들어가며

“공칠과삼(功七過三)”

마오쩌둥(이하 마오)이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이라는 이름 하에 부렸던 광기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 덩샤오핑이 마오에 대해 한 말로, 마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공식 평가도 이와 같습니다. 마오가 일정 기간 착오(과삼, 過三)를 범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가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요한 창시자(공칠, 功七)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12 기의 둘째 날의 첫 일정으로 우리는 마오쩌둥 주석 기념당(이하 기념당)으로 향했습니다. 필시 아침부터 사람이 많기에 매표소가 시작하기 전부터 가라는 버스 기사님의 조언에 따라 이른 아침부터 향했습니다. 보안검사를 끝내고 천안문 광장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채 기념당에 가까워지기 전부터 중국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기념당으로 향하는 그 모습에서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 마오주석은 당과 국가의 창시자로 영원히 기억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군부독재정권에 대해 트라우마를 가진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기시감이 일었습니다. 최근에 갔었던 중국 장사의 마오쩌둥 생가를 방문했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10.1m의 마오 동상 앞에서 헌화를 하고, 3번의 절을 하는 중국 사람들의 모습, 마오의 생가에서 마치 성지순례를 하러 온 시끌시끌한 중국사람들과 함께 여유 부릴 틈조차 주지 않는 줄을 서서 마오의 생가를 ‘타의적으로 통과’한 경험, 그들의 옷에 하나같이 달린 마오쩌둥의 얼굴 모양 배지를 관찰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생경했는데, 마오 기념당을 들어가기 위한 줄을 섰을 때 다시금 장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 마오쩌둥 주석 기념당을 들어가기 위해 줄 선 사람들



▲ 중국 호남성 소산(韶山)에 있는 마오쩌둥 생가를 들어가기 위한 줄. 심지어 사진 찍은 지점이 줄의 앞 부분이고, 뒤로는 긴 줄이 늘어져 있다.

중국에게 있어 마오는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과는 달리, 포름알데히드가 주입된 채 북경 한복판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다시금 중국을 이해하는 데 마오가 중요한 열쇠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본 답사기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1972 년, 냉전 시기의 국면이 전환된 그 때로 말입니다.

1972 년 냉전 시기의 국면은 전환되었습니다. 나아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국제정세의 변화는 기존의 냉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이라 사후적으로 평가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당시의 다른 행위자들을 차치하고 중국만을 보았을 때, 이 미중데탕트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는 이후의 1978 년 중국의 개혁개방, 2000 년대의 중국의 부상까지 현재에 이르러서도 궁극적으로 국제질서의 재편에 중요한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답사기는 미중데탕트의 배경에 있어 1960 년대 중국의 對소련 인식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1960 년대의 인식이란 마오의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 년대 초까지만 해도 마오쩌둥은 대외관계에 있어 철저하게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공산주의 혁명과 이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주창하며 중국의 대외정책을 구상하였고, 당시 중국에 있어 위협으로 상정되었던 것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소련일변도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1950 년대 말부터 흐루시초프 집권 이후에 중국이 소련에 대해 불편한 감정들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1960 년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이 불편한 인식이 확장되었습니다. 중국은 1960 년대 말부터 대외적으로 세계혁명론과 반제반수(反帝反修) 의 이름 하에 미국과 소련 모두를 패권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각 국에 대한 독자노선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1960 년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마오와 문혁으로 점철된 시대였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이 문혁을 ‘마오의 실수’, ‘10 년 동란’으로 규정하고 1960 년 당시의 상황은 중국이 지나친 좌경화에 빠져 세계로부터 격리되었으며, 이후 개혁개방시기에 본격적으로 세계와 소통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경화’란 마오가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을 당시, 중국의 열사들이 희생하여 쟁취한 사회주의 정권이 자본주의에 의해 무너진다고 믿었던 부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혁을 국가 내부의 ‘동란’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대의 상황을 보았을 때, 이는 오히려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이념적, 정치적 분화에 따른 국내의 ‘반발’로 평가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문혁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인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만일 몸소 겪지 않았다면, 근본적으로 문혁을 이해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고난을 두루 다 겪은 우리 민족이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가지게 된 재산이다.”

(왕지엔이(王建一) 〈쟈오편엔(焦点)〉 잡지 편집장 발언)

이처럼 마오쩌둥과 문혁을 배제한 채 중국, 특히나 1960 년대를 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대혁명부터 미중데탕트에 이르기까지 현재는 과거를 딛고 구성되는 것이겠지만, 문혁은 1949 년 신중국 성립 이후 지속되던 중국사회주의체제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문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현대사연구는 일반적으로 문화대혁명의 배경,

문화대혁명의 전개과정, 문화대혁명의 결과와 그 이후 개혁개방까지의 과정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발생배경을 분석하는 데 있어 1)사상적으로 좌경화된 이론과 현실과의 상호작용, 2) 정치적 측면에서 개인독단과 개인숭배의 상호작용, 3) 마지막으로 국제적 반수정주의와 국내적 반수정주의의 상호작용 이 세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 답사기에서는 이 세 가지 발생원인 중, 첫 번째와 세 번째에 가까운 입장에서 1960년대 인식변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즉, 당시 상황에서 중국 외부에서 수정주의가 나타나고 소련공산당 20대가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수정주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좌경화된 이론과 실천이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적 배경 속에서 소련과의 다소 경쟁적인 상호작용으로 반소(反蘇)인식이 커진 것이죠.

‘중국과 소련이 불평등하다.’

마오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소련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소련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1950년대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0 년 2 월 14 일, 중국과 소련 양국은 모스크바에서 〈중소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 (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 Zhōng-Sū Yǒuhào Tóngméng Hùzhù Tiáoyuè), 이하 중소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1945 년에 소련과 중국국민당 사이에 맺어진 동맹을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이 승리하자 새로이 중국공산당과 조약을 맺은 것이죠. 이는 물론 마오의 입장에서 스탈린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스탈린의 외교인식의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스탈린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자국의 안보였는데, 스탈린은 구체적으로 소련 주변에 비무장지대를 만드는, 즉 미국 편이 없는 것으로 안보를 추구했습니다. 마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949 년 10 월 1 일 새로이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확실한 우방을 확보해야 했고, 이는 중간 지대가 필요했던 스탈린의 계산에 맞아떨어졌습니다. 물론 양국 간의 사상적인 유사성이 있지만, 이전의 소련과 국민당과의 동맹을 고려했을 때, 1950 년 중소 조약 역시 이념/사상에 방점을 찍기 보다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는 1949 년 12 월 16 일 마오쩌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후 1950 년 1 월 말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회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맺어진 조약의 내용도 비교적 소련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중국은 소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실한 약소국이었기 때문이죠.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友好同盟互助條約)으로 명명되었지만 사실상

중국이 얻은 것은 5 년에 걸친 약 3 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스탈린은 창춘 철도, 뤼순, 다렌 에 관한 협정, 중국에 대한 차관 대부 승인에 대한 협정 등 스스로가 원했던 중간지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중국 영토에 대한 특권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마오는 이러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950 년 4 월, 이 조약의 비준을 위해 열린 중국 중앙인민정부위원회 회의 찬성투표에서 마오가 손을 들지 않았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런 불평등한 조약의 내용에 불만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60 년, 중소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 중국과 소련이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있고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스크바 선언의 준수를 촉구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보다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간의 관계는 형제적, 평등적, 동지적, 국제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모스크바 선언’을 소련이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1963 년 6 월 14 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제공산당운동의 총노선에 관한 건의 (關於國際主義共產黨運動總路線的建議)〉을 통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평등한 양국관계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동안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 불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의 흐름이 변화하는 계기가 바로 스탈린의 죽음이었습니다. 1953 년 3 월 5 일, 스탈린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마오의 개인 기록에 따르면, 그는 스탈린을 존경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과 필요에 의해 기꺼이 모스크바의 지시를 따르면서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관계가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반감으로 커지게 되었으며, 196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대등하게 취급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에 탐탁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에서 마오가 가지게 된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고, 스탈린이 죽은 뒤 마오는 이러한 흐름을 타고 세계사회주의 진영에서 지도권을 주장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탈린의 죽음이 마오에게 있어 사회주의 진영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던 것과 함께 이는 이후의 중소관계에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소련공산당 제 1서기 흐루시초프가 대회에서 당의 영도자 스탈린에 대해 공격하는 비밀연설을 했습니다. 마오는 스탈린을 격하하고 탈스탈린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마오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마오의 반대세력이 마오를 견제하는 공격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집단지도체제의 원칙이 점차 강조되고 개인 숭배가 규탄 받았는데, 이에 마오 역시 흐루시초프의 연설에 연동되어 집단지도체제를

강조하는 조치들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마오가 이에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고, 사적으로는 분노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오가 당시 상황에서 마지못해 집단지도체제를 옹호한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도 그럴 것이, 점차 마오에게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내의 상황에서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마오가 야심 차게 진행한 대약직운동과 인민공사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마오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오의 반수방수(反修防修) 인식

마오는 점차 흐루시초프의 집권과 비밀 연설 이후 반소인식과 중국만의 길의 사상적 배경을 닦기 시작하고, 문혁은 큰 틀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오는 다음과 같이 모순론에서 ‘공성’과 ‘개성’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모순의 보편성과 모순의 특수성의 관계는 모순의 공성(共性, 공통 성질)과 개성(個性, 개별 성질)의 관계이다. 공성은 일체의 과정에 존재하는 모순이며, 일체 과정의 시작과 끝을 관통한다. 모순은 바로 운동이며, 사물이며, 과정이며, 사상이다. 사물의 모순을 부정하는 것은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공통의 원리이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는 없다. 고로 공성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성은

일체의 개성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개성이 없으면 공성도 없다.”

여기서 모순의 공성이란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을 말하며, 모순의 개성이란 중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문화대혁명을 포함한 중국이 행한 일련의 혁명은 중국이 처한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여 달성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소련이 같은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이더라도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순론의 개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의 죽음 이후 사회주의 진영과 소련 스스로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길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 역시 소련의 개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중소논쟁 자료들을 보면, 당시의 중국과 소련이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 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는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중소 간의 불평등 인식을 바탕으로 스탈린의 죽음 이후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 일어난 흐루시초프와 마오의 대립까지 함께 작용하여 중소 양국은 같은 공성 하의 다른 개성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중소관계에서 소련은 우파적으로 경사되어 대내외의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좌파적으로 경사되어 소련공산당의 변화를 수차례에 걸쳐 비판했습니다.

1963 년 9 월 6 일부터 1964 년 7 월 14 일까지 <인민일보>와 잡지 <홍기(红旗)>에 발행된 9 편의 논평은 흐루시초프가 소련

공산당을 주도하면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분열시켰고, 소련을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 국가라 볼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9 평의 제목만 보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9 평(九評)〉

1. 소련공산당 지도가 우리와 분기하는 유래와 발전(苏共领导同我们分歧的由来和发展)
2. 스탈린 문제에 관하여(关于斯大林问题)
3.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국가인가?(南斯拉夫是社会主义国家吗?)
4. 신식민주의의 변호인(新殖民主义的辩护士)
5.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의 두 노선(在战争与和平问题上的两条路线)
6.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두 가지 평화공존 정책(两种根本对立的和平共处政策)
7. 소련공산당 지도부는当代 최대 분열주의자다(苏共领导是当代最大的分裂主义者)
8. 프롤레타리아계급 혁명과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无产阶级革命和赫鲁晓夫修正主义)
9. 흐루시초프의 가짜 공산주의와 세계 역사 속에서 그것의 교훈에 관하여(关于赫鲁晓夫的假共产主义及其在世界历史上的教训)

마오의 문혁은 소련보다 더 이상적인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문혁의 전개과정에서 마오의 이런 문혁 초창기의 주장에 의심스러운 부분들, 즉 권력투쟁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이 역사를 이끌어가기도 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문혁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다른 노선, 즉 다른 개성을 택한 소련을 비판하고 중국공산당에 수정주의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防修)하려고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의 수정주의가 결국 앞서 말했던 중소 관계의 변화에서 출발을 했고 문혁의 전개과정과 이후의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사회주의 혁명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적 반수정주의와 국제적 반수정주의는 필연적으로 상호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수정주의에 대한 움직임은 앞서 언급한 소련공산당 제 20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흐루시초프의 비밀 연설 이후에 본격화 되었습니다. 물론 마오가 집단지도체제에 지지를 표하는 등의 연설을 한 바 있지만, 이후 한편으로 마오는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방지하며, 제국주의, 수정주의, 반혁명을 타도하는 것’을 문혁의 공식적인 목표로 삼았고 마오는 국내에서는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방지하는 ‘반수방수(反修防修)’를, 국외에서는 반수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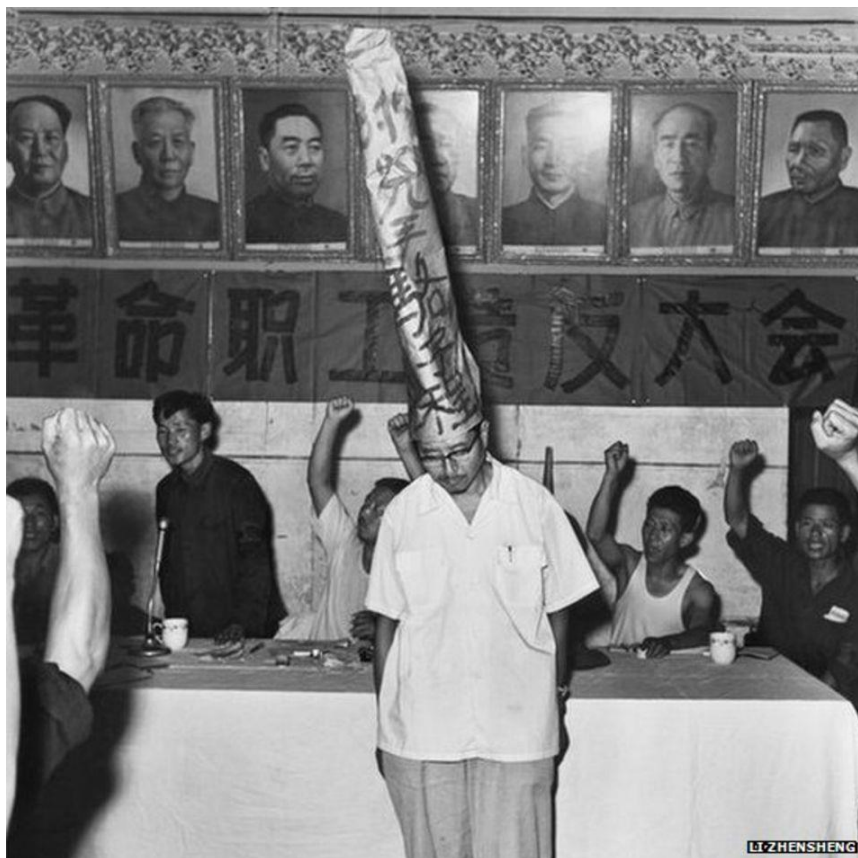
당시의 마오는 프롤레타리아 집권 정당의 지도자로 해야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주장했을 것입니다. 공산당의 지도자는 응당 언제나 깨어 있으며, 당과 국가에 존재하는 어두운 면을 폭로하고

극복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마오 역시 그런 맥락에서 국내외의 수정주의를 대상으로 깨어 있었고, 인민들이 어두운 길로 가지 않도록 압박하고 안내한 역할을 한 것이죠. 대외적으로는 패권을 추구하는 잘못된 길인 반 패권, 반 제국을 외치고, 사회주의 진영이 잘못된 길인 수정주의로 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마오의 반수방수 주장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당내외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지도자의 본 역할을 상기시키고 마침 당시의 이데올로기적으로 분화된 노선의 경계에서 이를 지적하며 환영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수방수의 흐름이 격화되면서 ‘마오의 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오의 이런 이론적 틀은 좋으나, 국내외의 반수정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마오는 이론과 실체의 괴리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었을 때 원래의 목적과 성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읽는 데 실패한 데다 후반부의 문혁을 보면, 문혁의 부작용은 마오의 손을 이미 떠나 홍위병의 손에 있었습니다. 당과 국가의 정치 형세나 사회계급관계에 대해 해석을 실패했고,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기반으로 수정주의를 정의 내렸을 때 실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오의 주장에서 벗어난 자는 곧 수정주의자로 타도의 대상이 되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것이 애초에 마오가 비판한 ‘수정주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외부적으로 반소외교를 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로 이 국내수정주의와 국제수정주의간의 상호작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한 것은 당시의 마오의 주장이 중국공산당원과 대다수의 군중들의 사상과 정치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이 수정주의의 부활과 위험에 현실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느끼도록 하였고, 이런 위기감은 많은 사람들이 문혁에 참가하게 하는 사상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중소논쟁에서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이미 좌경화된 중국 공산당의 좌경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켰고, 한편으로는 군중을 대상으로 한 선전물 역시 ‘반수’ 성향이 짙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결국 소련 수정주의와 대결구도에 대중들이 동조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릇 적이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해야 하고, 무릇 적이 지지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고 말한 마오의 말은 절대화 되었습니다. 반수정주의 양상이 극단으로 치달아 마오의 말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관점은 곧 적,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수정주의 딱지가 붙어 고통받았습니다.



▲ 홍콩강 신문 직원이 주자파(走資派, 자본주의를 주자한 자), 즉 수정주의자 죄목으로 처벌받고 있다.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19807561>
“Rare Chinese Revolution photos on display”)

마오의 전바오다오(珍寶島) 중소 국경분쟁

“전바오다오 전투는 중국이 주도했다.”

‘전바오다오 자위 반격 작전 소개 자료(珍寶島自衛反擊作戰介紹材料)’

1960년대 말 문혁이란 광기의 끝에 다다를 시점에, 중국은 보다 현실주의적 국가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초반만 하여도 미국에 대해 ‘미제국주의는 전 세계 인민의 가장 흉악한 적,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반면에,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에 대해 위협 인식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전의 1950년대부터 쌓아오던 불평등인식, 반소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소련의 팽창에 위협을 느끼던 중국이 보다 결정적으로 반소인식을 확립한 계기가 된 사건은 전바오다오를 둘러싼 중소 국경분쟁입니다.

1969년 3월 2일, 중소 국경지대인 중국 헤이룽장 성 우수리강 중류에 있는 섬 전바오다오에서 양국 군대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복싱에 특화되어 있는 러시아 군대에 대적하기 위해 죽봉을 이용한 무술을 쓴 중국 군인이 동원되었다는 일화를 남길 만큼, 어쩌면 그 시작은 중소 양국 군인들 간의 단순한 몸싸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싸움이 있고 열흘 뒤쯤부터 장갑차와 대전차포가 동원되었고 무력 분쟁으로 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인민일보의 자료를 보면 중국은 전시 수도를 충칭(重慶)으로 옮길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고, 전바오다오 인민들은 실제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퍼지면서 1960년대 확산되었던 반소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목에서 이 전바오다오 사건을 ‘마오의 전바오다오 국경분쟁’이라 명명한 데에는 최근 이 사건이 마오에 의해 기획되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말에 들어 소련의 팽창주의에 맞물려 중소 간의 크고 작은 국경분쟁은 사실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국내의 상황으로 인해 당시 중국은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자위적인 반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전바오다오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68년에 중소국경에 무단으로 들어온 소련 장갑차가 중국 인민 4명을 죽이는 사건(치리친다오(七里沁島)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경협상도 협상이지만, 마오는 이에 ‘쓴 교훈을 소련에 보여주자’며 이후 소련이 또다시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공격한다면 자위적인 목적을 가진 반격을 확실히 하자고 주장하고 소련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바오다오에서 전방부대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소련의 국경 침입에 대한 마오의 지침에 따라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반소 인식이 반영된 결과물이자,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즉 미중데탕트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마오는 그래서인지, 3월 15일 전바오다오 국경분쟁에서 중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소식에서 마오는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나가며

“복잡한 국제정세는 (저우언라이를 가리키며)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하고는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자.”

(1972 년 2 월 닉슨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마오쩌둥 발언)

현재에도, 1972 년 ‘상하이 코뮌니케(상하이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도, 마오는 중국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972 년 당시에는 마오가 살아있어 방중한 닉슨을 마오가 집무실로 초청해 직접 면담했다고 하나, 건강 상의 악화로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저우언라이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닉슨과 저우언라이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마오가 정신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1960 년대는 그것이 실수든, 공적이든, 어쨌거나 마오로 점철된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문혁을 둘러싼 중국 국내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긴 합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반소인식을 갖추기까지, 정책레벨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미국의 실리를 계산해보기까지 마오가 함께 한 것은 분명합니다. 1974 년 운명을 달리하기 직전에 닉슨과 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군대를 외부에 내보내지 않습니다”라고 마오가 발언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마오가 당시 미국에게 베트남 전쟁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린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형과 세를 잘 읽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대외정책을 꾸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문혁의 말로를 보았을 때, 마오는 문혁 하나로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 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과 세를 읽지 못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큰 틀이든, 국내 정치적 싸움의 틀이든 그는 오판했고 ‘실수’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다만, 그의 1960 년대의 그런 행보는 적어도 중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미데탕트를 시작으로 중국은 1978 년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냈으며, 중국은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혁에 대한 반성으로 지나친 좌경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국의 모습이 과거 1960 년대의 중국에 비해 변했다고 해도, 마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임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방향에 따라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이다”(중국 헌법)

중국이 흔히 말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역시 이론적으로 마오의 모순론에 나타난 공성과 개성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곳곳에서 마오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마치 장사와 북경에서 느꼈던 기시감이 다시금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본 답사기를 준비하며 사랑방을 통해 중국을 이해하는 열쇠로 마오와 문혁, 당대의 대외 인식을 짚어 나간 이 경험은 앞으로의 중국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마오쩌둥 주석 기념관 앞에서 사랑방 12 기

참고문헌

- 전리군. 2012.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다르게 쓴 역사 상,하》. 파주: 한울아카데미
- 진충밍, 시쉬엔. 2000. 《문화대혁명사》. 서울:나무와 숲.
- 프랑크 디코터. 2017. 《문화대혁명: 중국 인민의 역사》. 고기탁 역.
파주: 열린책들
- _____. 2017. 《해방의 비극: 중국 혁명의 역사》. 고기탁
역. 파주: 열린책들
- _____. 2017. 《마오의 대기근: 중국 참극의 역사》. 최파일
역. 파주: 열린책들
- 신경진. 2013. “‘싸우지 않으면 그만,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마오쩌둥식 전쟁” <Chindia plus> 10 월호, 44-45.
- Thomas Robinson, “The Sino-Soviet Border Conflicts of 1969: New
Evidence Three Decades Later,” Mark A. Ryan et al., eds.,
Chinese Warfighting: The PLA Experience since 1949 (New
York: M.E. Sharpe, 2003)
- “One Finger’s Worth of Historical Events: New Russian and Chinese
Evidence on the Sino-Soviet Alliance and Split, 1948-1959”,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ugust
2000.

M. Taylor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Li Zhisui, *The Private Life of Chairman Mao: The Memoirs of Mao's Personal Physician*, New York: Random House 1994.

Alastair Lawson. 2012. "Rare Chinese Revolution photos on display." Accessed July 1.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19807561>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2014. "Memorandum from J. R. Oppenheimer to Brigadier General Farrell, May 11, 1945." Accessed June 9. <http://www2.gwu.edu/~nsarchiv/NSAEBB/NSAEBB162/5.pdf>.

中国共产党. 1921. 《中国共产党历史》. 中国共产党党史研究室.
毛泽东. 1944. 《毛泽东选集》. 人民出版社.

인민일보 아카이브 홈페이지. (검색일: 2019.05.06)

18세기 박제가가 바라본 청나라와 조선 _유리창

정지원

이화여자대학교

들어가며

사랑방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당대의 시대상을 엿보았는데, 그 중 유리창을 고르면서 18세기 청나라와 조선의 시대상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의 북학파이자 실학파로 알려진 박제가의 삶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병자호란의 아픔을 지닌 조선의 관료가 유리창에서 만난 청나라 나병이라는 화가와 편지, 시, 그림 등을 애절하게 나눈 것을 보면서, 박제가에게 유리창은 어떠한 의미였으며,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 속에서 그가 유리창에서 보낸 일련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는 청나라의 문물과 지식에 대해 매우 열려있었던 소수의 조선 관료로 자신의 청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청나라에서의 경험을 뒤쫓기로 했습니다.

사랑방 답사로 중국으로 떠난 사랑방 멤버들과 비슷하게, 청나라로 떠난 박제가의 삶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 청나라 나빙이 그린 박제가의 초상화 (출처: 인물한국사)

박제가가 청나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트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신분이 서얼이라는 점으로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그가 가까이하고 교류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는 서얼 출신이었기 때문에 신분적인 제한을 상대적으로 일찍 깨닫고,

크게 보았을 때 이는 당대의 사대부 및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 그 자체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서얼임에도 정조의 발탁으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세 차례나 검사관의 생활을 했었고, 중간 중간 네 차례에 걸친 연행을 경험했습니다. 유리창과 같은 장소로의 연행을 통해서 그는 청나라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이를 조선과 비교하며 더 큰 질서 속의 조선 사회의 폐단과 발전 방향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박제가는 연암 박지원을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백담시파’에 속한 사람으로 이덕무, 유득공 등과 고민을 나누며 친하게 지냈으며, 청나라에서 연을 맺은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덕무와는 같은 서얼의 신분으로 규장각에서 일하고 연행도 여러 번 같이 다녀오는 등 시간을 많이 보낸 박제가의 벗이었기에 ‘백담시파’ 중에서 박제가의 이덕무와의 관계는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청나라 화가 나빙의 경우에도 살아생전에도 사후에도 나빙과의 교류에 대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나빙과의 교류도 그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함이 틀림없습니다. 조선 사람이던 청나라 사람이던 박제가는 그들과 함께하며, 적대심 속의 청나라보다 실존하는 청나라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리창과 같은 곳으로의 연행과 그 과정을 함께 했던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넓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제가의 신분, 서얼

박제가는 서얼의 신분이 사회적 진출을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고, 역설적이게도 이는 박제가가 상대적으로 당대의 사회제도로부터 더 자율성을 지닐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를 일찍 몸으로 느꼈고 그만큼 사대부 계층과 그들을 등용해서 나랏일을 맡기게 하는 과정인 과거 제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유각집을 보면 박제가가 꼬집으려는 사회적 차별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뜻이 있어도 가난하면 성취 어렵고
할 만하면 건방 떨며 하려 않누나.
온전한 재주를 하늘 아끼니
국한됨은 마침내 매한가질세.”

그저 서얼이라는 신분 자체에 국한된 차별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에 대한 한탄과 허탈함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박제가는 조선의 사회제도가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비판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공부하지 않고 과거 시험을 본 이후, 3등을 한 자신의 경험을 “어찌다 높은 등수에 뽑혀 마침내 남의 비웃음을 받게 되니 지금껏 남은 부끄러움이 있

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부끄러운’ 행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북학의』를 써서 왕에게 바치면서 조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중에 가장 먼저해야하는 것을 유생을 도태시키는 일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농업을 장려하는 흐름이 중요한데 10만명이 넘는 유생들이 과거시험에 몰두하는 현재의 상황이 옳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제가는 강자와 약자의 차별적 구조를 비판합니다.

“똑같은 백성이지만 부림을 받는 자와 부리는 자 사이에는 강자와 약자의 형세가 형성됩니다. 강자와 약자의 형세가 형성되고 나면 농업은 날로 경시되고 과거는 날로 중시되게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병오년 조회에 참석했을 때, 국가가 만든 사대부에게 국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스스로를 피폐케 하는 것이고 인재선발이 과거 제도로 인해 무너지는 것 또한 피폐케 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질문을 날카로운 어조로 기록해놓았습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 그 제도가 영향을 끼치는 범위를 폭넓게 보고, 구조적인 접근 속에서 조선 사회 내 차별을 찾아냈습니다. 산문에서는 더 날카롭게, 시로는 조금은 더 한탄스럽게, 당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평가하는데

자서적인 내용과 어조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박제가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자신의 능력을 가로막는 유리천장과 같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더욱이나 그 벽은 위가 보이는 유리창이었습니다. 서얼이었지만 관직을 경험했고 자신이 느끼기에 더 큰 세상을 청나라에서 연행을 통해 겪었기 때문입니다.

서얼 출신으로 분명한 신분 제약이 있었지만 정조가 서얼허통절목을 공포하면서 박제가는 이덕무, 유득공 등과 함께 1779년 규장각의 초대 검서관으로 발탁됩니다. 그 이후에도 1789년, 1794년에 두 차례 더 검서관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1778년의 연행을 시작으로 1801년의 마지막 연행까지 총 네 차례에 걸친 연행을 체험하였습니다. 거듭되는 관직 생활과 연행경험을 통해 사회적 구조의 문제점과 차별을 더더욱 생생하게 느꼈을 것이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소위 말하는 국제정치학적 관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2019년의 사랑방 멤버들이 중국 답사길에 오른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답사지도 그렇겠지만, 특히 유리창 답사는 18세기의 박제가의 길을 걸어보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 박제가도 거닐었을 유리창의 거리

박제가는 청나라를 “깡그리 오랑캐”로 인식하지 않고, 청나라의 질서가 백성들에게 이익이라면 성인은 그 법을 택하는 것이 옳고, 심지어는 중국의 “옛 땅”에서 만든 법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맹자의 말을 빌려 오랑캐는 오랑캐이고 주나라의 문물이 오랑캐의 것으로 물들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성인’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선택적 수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주자의 나라, 소중화의 노선을 택한 조선의 땅에서 오랑캐의 법이 배울만한 점이 분명히 있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성인의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조선의 청나라에 대한 시각과 조선의 국제학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지금 청나라가 되놈이긴 하다. 되놈의 청나라는 중국을 차지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약탈하여 소유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빼앗은 주체가 되놈인 것만 알고 빼앗김을 당한 존재가 중국인 줄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조차도 하지 못했으니 이것은 벌써 드러난 명확한 증거인 것이다. ... 나는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오랑캐를 물리치기는커녕 우리나라 안에 있는 오랑캐의 풍속도 다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대체하고 천하를 차지했음을 받아들이고, 병자호란의 아픔을 간직한 채로 청나라와 조선의 국제학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제정서를 파악하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려는 조선의 행보는 백성들을 더 궁핍하게 만들고 발전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시를 남길 때도 ‘중화를 사모한다’는 말을 자주 흔하게 썼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나만큼 여행한 사람 없다오, 어려서부터 중화를 사모하다가 이 몸이 직접 보니 기쁘기만 해. 오악도 오를 수 있을 듯하여 헌신짝

버리듯이 집 떠나왔지.” 그러한 사고의 방식 밑에는 그가 다녀온 연행의 경험이 진하게 남아있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는 같이 다녀온 이덕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덕무에게 어째서 중화를 사모하는 지를 물었을 때, 이덕무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박제가는 기록합니다.

“내가 중화의 책을 읽었고, 예전에 그 땅을 가보기도 했다. 땅은 넓고 책은 많아,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변화를 알 수 없는 신령과 같았다. 없는 게 없음을 풍부하다고 하고, 사람이 자득하는 것을 일러 즐거움이라 한다. 내가 지난날 옛사람의 책을 읽고 그 문장이라는 것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이제야 시서와 예악이 모두 중화의 것으로 풍부하여 즐길 만함을 알았으니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야흐로 고개 숙여 글을 읽고, 하늘을 우러러 생각하니 옛사람으로 되는 것이 절로 까닭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을 사모할 만함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의 글을 알지 못하는 자일 뿐 아니라, 천세 이전과 만 리의 아득함을 알지 못하는 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덕무가 바라보는 청나라의 모습과 조선의 위치는 박제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사모’는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온 연행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청나라의 실제 모습 그대로를 인식하고 이와 반대의 길로 가는 조선의 시대착오적인 방향성에 대해 가차 없이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18세기의 유리창을 떠올리게 하는 서적 가득한 21세기 유리창

박제가의 벼들, 이덕무와 나빙

신분적인 한계와 그러한 차별을 직접적으로 관직에 오르면서 견디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연행의 경험을 통해 조선에 갇히지 않고

국제적인 시각을 지닐 수 있었다 할지라도, 혼자였다면 그 일련의 과정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트인 사고를 가지기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당대 조선의 주요한 정치적인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지속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박제가는 곁에도 멀리도 그와 생각하는 바를 나누고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벗이 곁에 있었고, 이들은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에서는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뜻이 맞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덕무를, 청나라와 교류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나병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제가의 시집의 전체적인 어조는 굉장히 한탄스럽고 애뜻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삶을 애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더 나은 삶과 사회에 대한 갈망도 보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감정을 자주 나눴던 사람 중 한 명이 이덕무였습니다. 관직에도 같이 오르고, 연행도 같이 가면서 박제가는 이덕무와 관련된 글을 많이 남겼고, 그에 대해 애뜻한 감정을 시에 종종 담았습니다.

그가 이덕무를 비롯한 벗들과 사회에 대한 고뇌와 삶을 힘들고 기쁜 순간들을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등과 함께 승가사에 올랐습니다. 이덕무가 먼저 돌아가기에 가는 길에 보통정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북한산을 거쳐 조계에서 놀다가 다시 서상수와

익무를 만나 묵으며 기행시를 지었다.”에 보면, “진솔함을 따를 뿐
구속 따위 내던지고 꺾꺾대며 크게 웃다 손바닥을 쳐 댔다네. 그
누가 이 밤을 썩지 않게 할 것인가. 자라건대 글로 적어 벗들에게
전하리라”던가 “백문에서 박지원을 만나다”의 “푸른 잎 서편으로
초승달 빛 흘리고 옅은 구름 남은 더위 더더욱 쓸쓸해라. 어이해
알았으리 서너 사람 만나서 밤새도록 가을별레 소리 함께 들을 줄”을
통해 이 특별한 인연에 대한 박제가의 애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웃으며 풍류를 즐기는 것에 끝나지 않고 서로 돌아가면서 글을
적고 시를 읊으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덕무와의 편지를 보면 학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공유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덕무가 1793년에 생을 마감한 이후 그즈음
박제가의 부인도 사망하기도 하여, 박제가의 슬픔과 그리움이 극에
달하는 것을 그의 무덤을 지나며 마음이 상해 술을 따른다는 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덕무의 편지를 읽고 쓴 내용에서도
박제가에게 벗, 이덕무의 강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장관이 생전에는 나는 새와 같았는데 한순간 사라지고
푸른 하늘 아득하네. 그 누가 허공 좇아 그 모습 기억할까
너울너울 떨어진 것 그것으론 알 수 없네. 갑자기 손을 놓
고 낭떠러지 떨어지니 굴꺾질 매미 모두 함께 사라졌네.
구름 지금 스쳐 가도 말을 할 수 없으니 옛 구름에 묻는다

면 그대는 어떠한가. 황금도 주조하고 비단도 짤 만하니
두 마리 모기로써 우주를 경영하네. <이십일사탄사>의 소
리는 싸늘하여 악기 붙여 소리 내지 못하누나. 물가의 불
은 버들 버들개지 토했으며 가는 비늘 붉은 고기 푸른 물
거스르네. 두만강 물가에는 봄날이 저무는데 굵은 물에 잔
떠우던 그곳과 같지 않네”

이덕무는 규장각에서도, 풍류를 즐기는 순간에서도, 연행을 같이 갔을 때에도, 이덕무의 사후에 박제가가 혼자 남았을 때에도, 박제가에
게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감정과 학술, 정치적인 식견을 공유하는 사
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박제가와 이덕무가 함께 거닐었을 유리창 거리

네 차례의 여행을 다녀온 박제가는 특히, 1790년에 청나라 건륭제의 팔순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여행길에 두 번째로 올랐을 때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고, 동시에 청나라 화가 양봄 나빙과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빙과는 시문을 활발히 주고받았었고 나빙은 박제가에게 초상화, 부채 등을 선물해준 것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와서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 우정은 지속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우정이기도 하지만 청나라 사람과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미 다른 조선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계속 걸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로써 청나라에 대한 박제가의 가치관은 더 강해졌을 것이고, 이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 박제가와 나빙이 함께 지나다녔을 유리창 거리

정유각집을 보면 나빙과 관련된 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빙도 부모를 청나라 군사로 인해 잃었고 병자호란을 겪은 나라에서 온 박제가의 우정도 특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제가는 그의 예술적인 감각을 칭찬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우연히 그림 보러 길 나섰다가
사찰에서 좋은 벗 만나 보았네.
사람들 하나같이 옥골 재사요.
꽃잎도 송이송이 빙옥 같구나.
한가지로 서글픔 만들어내니
짧은 이별 애석해 마음 상하네.
가정 땅은 풍류의 고장이거니
고운 그대 중흥에 있구려.”

“도인이 대나무를 그릴 적에는
도리어 색상 따라 일으키지만,
그대 보게 대나무 그린 뒤에는
신묘함 겉모습에 있지 않다네.”

나빙의 생일과 같은 기쁜 순간에도 박제가의 청나라 사람과의 진정성 있는 교류는 지속되었지만 슬픈 순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병의 아내 방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와 관련된 글을 남기고, 편지를 보냈다. “〈당운〉 베끼 신선 인연 가볍지 않고 시 지어도 부덕은 밝기만 했네. 문재는 유서보다 윗길에 서니 그 집안의 연원이 동성에 있네. 자잘해도 모두 다 명리에 맞고 고고함은 그 또한 성정이었네. 저승의 시 모임은 쓸쓸하리니 뉘 다시 나황을 생각하리오”라면서 부인에 대한 평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나병의 사별의 슬픔을 함께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덕무도 마찬가지로 박제가도 청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려면 청나라에 가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나라와의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나라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포함한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박제가에게 나병과 같은 청나라 사람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스스로 세상을 읽고, 그 큰 세상 속에 스스로를 위치하는 방식이었으며, 조선의 벗들과 그 길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박제가의 소신을 이어나갈 수 있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김대중, 2013, “내부외부에 대한 두 개의 시선.” <한국사연구> 162, 165-209.
- 박제가, 정민 외. 2010. 《정유각집: 북학파의 선구 초청 박제가 전집 하 문집 1권~5권》. 돌배게.
- 박제가, 안대회. 2003. 《북학의 - 조선의 근대를 꿈꾼 사상가 박제가의 개혁 개방론》. 돌배게.
- 박현규, 2013. “조선 朴齊家柳得恭과 청 화가 羅聘의 畵緣.” <한국학논집> 50, 69-96.
- 손성욱, 2012. “19세기 朝·淸 문인 교류의 전개 양상.” <역사학보> 216, 277-307.
- 원재연, 2009. “17~19세기 연행사의 북경 내 활동공간 여구.” <동북아역사논총> 26, 205-262.
- 이철승, 2022, “박제가의 철학 사상에 나타난 비판 정신과 반성리학적 경향.” <범한철학> 25, 109-124.
- 조성산, 2014. “18세기 후반 李喜經·朴齊家の 북학사상 논리와 古學.” <역사교육> 130, 83-117.
- 최소자, 2005, “조선 후기 진보적 지식인들의 중국방문과 交遊.” <명청사연구> 23, 1-32.

역사를 통해 중국의 자부심을 엿보다

_중국 국가 박물관

이인우

성균관대학교

들어가며

사랑방 12기 답사 첫째날의 설렘과 고단함을 뒤로한 채 그 다음날인 6월 27일, 저희는 천안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둘째날의 답사지가 모두 천안문 광장 주변에 있어서 처음에는 무난하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기분 좋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점심 일정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오쩌둥 기념관에서 중국인들이 마오쩌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고 마오의 사진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저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은 후통(胡同)에 있는 프랑스 음식점에서 코스요리를 먹었습니다. 일정은 조금 늦어졌지만 2일차 전체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박물관에 도

착하고 나서 한나라시대를 둘러볼 때 갑자기 폐관한다며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제가 관심이 있었던 정화의 명나라는 둘러보지 못한 채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성 또한 들어갈 수 없어 그날 일정은 예기치 못하게 일찍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중국인들에게 정화의 원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느껴보고 싶었고 정화의 원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종합하여 최대한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바라보고 싶었기에 그 아쉬움은 더 컸습니다. 웅장한 국가박물관을 보면서 역사에 대한 중국인의 자부심을 엿보고 이를 통해 정화를 어떻게 바라볼 지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었죠.



▲ 국가박물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답사 발표를 하는 모습(좌)



▲ 오전의 마오주석 기념관에서 찍은 단체사진(우)

정화의 원정은 1405 ~ 1433년 사이 7회에 걸쳐 이뤄진 대규모 해상 원정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보다 100년이나 앞선 시기에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까지 항해했고 그 규모 사상 유례없는 규모였습니다. 대규모 원정을 통해 중국은 인도양에 대한 해상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면서 외교관계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양강국을 꿈꾸는 중국에게는 자부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정의 성격과 목적을 통해 현재 중국이 어떤 모습으로 부상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차 원정을 마지막으로 대규모 해상 원정은 중단되었고 이후 중국은 서구 열강들에 의해 유린당하게 됩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면 세계사는 달라질 수 있었는데 왜 해상원정이 중단되었던 것일까요? 중단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원정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정화 원정의 목적을 결과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료들을 토대로 여러 측면에서 원인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정화, 바다로 나아가다.



▲ 정화의 조각상(좌)



▲ 영락제 초상화(우)

명나라 초기 환관이었던 정화는 영락제의 명을 받아 아프리카까지 해상 원정을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화 원정의 원인과 목적에 대한 분석은 경제, 천하사상, 국내 명분 세 가지 측면 중 한 가지 측면에서만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측면으로만 보기에 원정의 원인을 파악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재구성하여 정화의 원정을 다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명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그려야 했기에 국가박물관에서 명나라 시기를 시간을 더 들여 둘러보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자료들을 보완해서 다시 답사기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화의 원정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상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명나라의 건국 기초를 닦은 주원장이 만든 명나라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14세기는 원나라의 통치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황위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일상화되어 내란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와 지주의 횡포, 자연재해, 전염병, 왜구의 침입 등으로 민생이 파폐해져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이것이 홍건적의 난이었죠. 홍건적의 여러 세력들 중 주원장 세력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명나라가 건국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원 말기의 반란을 진정시키고 새 천자가 된 주원장에게 시급한 것은 원나라를 대신한 새 왕조의 기초 확립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안팎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시골의 소작농 출신이었던 주원장에게 급선무는 위협적인 정치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황권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생국 명나라에게 국방상의 커다란 위협은 몽골의 잔존 세력인 북원과 중국 해안에서 약탈을 일삼고 있는 왜구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대내외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위정자들은 유교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명 왕조를 정당화하는 한편, 유교적 질서에 따라 대내외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교적 이론의 토대는 ‘천명사상’과 ‘화이사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천명사상에 기초해 군-신-민으로 국내의 신분질서를 서열화하고, 화이사상에 유래를 두고 주변국들과의 종속관계를 통해 국제질

서를 세워 나가려고 했죠. 이런 생각에서 주원장은 국가주도의 조공 무역을 통해 주변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한 유교적 교리를 수립하고자 하였던 이 시기 무대의 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황제의 권력 강화였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한 관료, 민중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였습니다. 원 말기 혼란을 겪은 홍무제는 전통 질서의 재확립과 더불어 확립된 질서를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강력한 전제 정치하에서 공포 정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공포정치를 통한 주원장의 황제의 권력 강화와 유교원리주의는 영락제의 명나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398년 명나라의 기틀을 다진 명태조 주원장이 죽고 건문제(建文帝)가 즉위를 합니다. 이 시기 중앙의 통제가 민간에게까지 강화되어 황제의 권한에 누구도 도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하 사상과 화이질서를 토대로 전제왕권이 확립되고 조공무역이 시행되었습니다. 건문제가 즉위하였지만 그로부터 4년 뒤 홍무제의 넷째 아들인 영락제가 황위를 찬탈하고 즉위합니다. 영락제의 황위 찬탈의 난을 일컫는 정난의 난으로 국내 정세는 혼란했고 영락제는 이에 따라 대내 안정을 꾀해야 했습니다. 또한 진한 이래 개척되어 육상 무역로로 사용되어 온 실크로드가 원나라의 붕괴로 폐쇄되어 육로를 통한 교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남쪽의 동남아 지역 역시 불안정한 상황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초 대외 영향력이 제한되었고 국내 상황의 불안정으로 “제번국의 사신과 여객들이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죠. 천하질서와 화이질서를 통한 중화체제 구축이라는 명나라의 전반적인 사상적 흐름을

볼 때 외국과의 교류 단절은 중국의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조가 건국 이념으로 사용했던 유교에 따르면 명분 없는 영락제의 즉위는 그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많은 대규모 사업들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천자의 모습을 위해서는 관념상의 천하가 현실화되어야 했기에 최대한 조공국가를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해적의 창궐과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지역 안정이 극도로 불안정해진 시기였기도 합니다. 수마트라의 왕위 쟁탈전이나 태국과 말라카 사이의 충돌,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 사이의 전쟁 등 크고 작은 갈등으로 지역의 안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난의 난으로 명나라의 대외 통제력이 약화되자 해로(海路)는 크게 불안정해졌습니다. 유교적 원리주의 아래 천하질서를 수호하는 중화천자로서의 영락제는 위와 같은 상황이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천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영락제 개인의 이상과 국가 차원에서 해상 원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영락제는 정화를 파견합니다. 당시 원리주의적인 유교주의가 팽배해 있어 천하 사상과 화이질서라는 개념이 영락제 개인과 관료들에게 내재화되어 있었고 아버지 태조가 물려준 강력한 황권은 영락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천하를 현실화할 때에 반대 세력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을 실현할 의지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정화의 원정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왕조 교체기의 혼란

함과 영락제의 정난의 변을 통해 마비되었던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회복된 경제를 통해 영락제는 대규모 선단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섣덕제 이후 정화의 원정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 재정적자였음을 들어 정화의 원정의 무역이익이 거의 없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무역이익 상당히 컸음을 서양조공전록(西洋朝貢典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영락 원년부터 건사하여 사방에 직서를 보냈으며, 사절단이 조공을 마치면 기이한 보물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진귀한 물품들이 국고에 가득찬다. 빈민들은 해외무역을 통하여 치부하였으며, 국가도 부유해졌다.

또한 정화의 원정은 지역 안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성조 실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화는 군사를 정돈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진조의를 무리들을 끌고 와서 약탈하려고 할 때 정화는 군사를 풀어서 싸웠다. 진조의를 대패시켜 5000여 명을 살해하고 적선 10척을 소각하였으며 7척을 포획하였다.” 정화 선단의 해적 소탕의 결과 항로가 안정되고 번인(蕃人)들도 사업을 안심하고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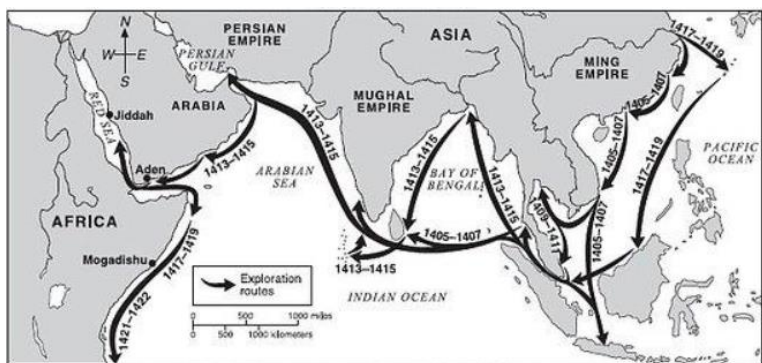
그렇다면 동남아 지역의 안정과 무역 이익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왜 영락제는 정화를 아프리카까지 보냈을까요? 이것은 영락제의 황위 찬탈을 정당화 시키려는 개인적인 목적과 당시 만연해있던 천하사상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제왕이란 세계의 중심이며 만국을 배려하고 통어하는 존재인 것이다. 진실로 넓은 하늘이 덮지 않는 것이 없고 땅이 신지 않는 것이 없듯이, 멀리서 온 자가 있으면 모두 인자함으로써 다스리고 각자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줘야 한다.

위의 영락제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영락제의 천하 관념은 동남 아시아를 넘어 여력이 된다면 그 한계까지 조공 체제를 수립하여 천하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 경제 상황의 안정화로 명나라는 천하질서를 넓히기 위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교적 원칙주의에 입각한 천하사상이 내재화된 영락제의 의지, 그리고 그의 천자로서 이미지 구축이라는 필요성이 합쳐져 정화는 아프리카까지 진출하였고 이는 다시 영락제 시기 천하질서의 확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동부, 동쪽으로는 일본에까지 미친 조공체제 확립은 영락제 시기 사이(四夷)사이에서 예의적 질서를 확립하고 확장함으로써 명나라 중심의 세계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지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처음으로 중국인들에게 실제 천하질서와 관념상의 천하질서가 거의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하질서를 현실화함과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해상원정은 왜 영락제 이후 중단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사업의 특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정화의 원정을 지속할 동기가 부족했습니다. 영락제 개인의 정당성 확보, 그리고 이를 위한 확장적 외교정책은 홍희제와 선덕제 이후 더 이상 필요한 정책이 아니었

고 선덕제 스스로도 또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황제의 정책 노선이 변경된 것과 더불어 영락제 시기 일어난 안남 정벌, 북원 정벌, 북경 천도 등의 대규모 정책은 경제가 안정화 되었다고는 하나 명나라 조정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 원정을 통한 이익은 영락제가 벌인 사업들의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오히려 영락제의 확장적 대외정책의 유산 중 하나로 생각되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홍희제와 주변 관료들이 영락제 사후 곧바로 남경 환도를 추진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정화의 선단을 불러들이고 정화를 남경 수비대장으로 임명한 것, 북원 정벌을 중단한 것 등에서 보았을 때 영락제의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꽤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영락제의 강력한 황권에 눌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뿐이었고 영락제 사후 홍희, 선덕제에 이르러 관료들과 황제 사이의 권력의 비대칭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정화의 원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이후 완전히 중단되게 된 것이죠. 황제 개인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 유교 이념의 내재화에 따른 천하 사상의 체계화 등으로 영락제는 정화의 해상 원정을 계획했으며 이러한 계획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면서 실현될 수 있었으나 영락제의 사망과 과도한 국고 지출로 인해 영락제 사후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 정화의 해상 원정로

참고문헌

- 허일, 김성준, 崔云峰 편역, 2005, 《중국의 대항해자 정화의 배와 항해》, 심산
- 자넷 아부루고드, 박홍식·이은정 역, 2009, 《유럽 패권 이전》, 까치
- Dreyer, Edward L., 2007, 『Zheng He: China and the Oceans in the Early Ming Dynasty, 1405-1433』, New York: Pearson Longman
- Finaly, Robert, 2008, “The Voyages of Zheng He: Ideoplogy, State Power, and Maritime Trade in Ming China”, The Journal of The Historical Society 8(3), pp.327-347.
- Haraprasad Ray, 1987, “An Analysis of the Chinese Maritime Voyages into the Indian Ocean during Early Ming Dynasty and their Rasion d’etre, An Analysis of the Chinese Maritime Voyages into the Indian Ocean, 23, 1.
- Sen, Tansen, 2006, “The Formation of Chinese Maritime Networks to Southern Asia, 1200-1450,”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49, 4.
- Wade, Geoffery, 2005, “The Zheng He Voyages: A Reassessment,” Asia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No. 31

Wade, Geoffery, 2008, "Engaging the South: Ming China and Southeast Asia in the Fifteenth Centruy",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51(2008), pp. 578-638.

Zachary Reddick, 2012, "The Zheng He Voyages Reconsidered: A Means of Imperial Power Projection", *Quarterly Journal of Chinese Studies*, 3(1), 55-65.

북벌정책의 실현과 좌절 _자금성

장도경

연세대학교

들어가며

12기 사랑방에게 자금성은 영문명대로 금지된 도시였습니다. 답사 이틀 차에 방문 예정이었던 자금성은 정체 모를 행사로 인하여 관람 시간이 일방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금성 출입구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예약했던 전자 티켓이 말썽을 일으켜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자금성 방문을 답사 마지막 날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사 3일 차, 오늘이 아니면 자금성을 답사 기간 내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새벽부터 분주히 준비하고 개관시간에 맞춰 자금성을 향했습니다. 전날 상담원분은 전자티켓이 더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저희가 구매한 입장권은 거듭하여 예약내역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장구매를 통하여

금지된 도시에 가까스로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자금성의 영문명은 Forbidden city로 금지된 도시로 ‘금’의 의미가 강조되었지만, 자금성의 전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앞의 자금성의 첫 글자인 ‘자’가 갖는 의미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자(紫)는 ‘자줏빛’이라는 뜻인데, 고대 중국 사람들은 천제(天帝)가 거주하는 天宮(천궁)을 자궁(紫宮)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紫)의 한자는 바로 ‘紫微垣(자미원)’이라고 하는 北斗星(북두성)의 북쪽에 있는 별을 가리키는데, 이곳에 天帝(천제)가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다스리는 皇帝(황제)는 스스로 칭하기를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은 하늘의 아들(天子(천자))’이라고 하여 그가 머무르고 있는 곳을 은연중에 紫微星(자미성)의 운수와 일치시키게 하였고, 이에 따라 궁전의 방위, 위치 등 모든 것을 정밀하게 조사한 뒤에 확정하였기 때문에 ‘紫宮(자궁)’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곳도 삼엄한 경계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皇宮(황궁)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금지된 구역이기 때문에 ‘금지하다’는 뜻의 ‘禁(금)’이라는 한자를 넣어 ‘紫禁城(자금성)’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앞선 의미를 고려해보면 자금성은 천하질서에 가장 부합하는 궁전의 이름이라 생각됩니다.



▲ 자금성 정전인 태화전 앞에서 단체사진

이런 천하질서에 도전한 조선 유일의 임금에 있었으니 그가 효종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었지만 한 번쯤은 가정을 해보는 이유는 아마도 아쉬움 때문일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한 번쯤은 상상해보는 시기가 있다면 명청교체기일 것인데, 양란 이후 조선의 안팎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토지는 황폐화되었고, 신분제의 근간이 흔들렸으며 왕권은 추락했습니다. 한편, 문명의 중심에 서 있던 명나라는 융성하는 이민족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조선의 두 왕자가 있었습니다. 일국의 왕자로서 8년의 굴욕적인 볼모 생활을 함께했지만 두 왕자가 추구했던 방향은 사뭇 달랐습니다. 명청교체기를 보며 중원의 패자로 떠오른 청을 인정하고 배우고자 했던 소현세자가 있었다면, 봉림대군은 청에

대한 원한을 키우며 북벌의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둘의 선택은 극단에 있었고, 이 선택은 조선 후기의 향배를 가로지르는 시작점과도 같았습니다.

두 왕자의 선택이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기로와도 같았기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크게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소현세자의 외교적 감각이 재조명되면서 소현세자가 죽지 않고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의 운명은 어땠을까류의 가정을 하게되지만, 정반대로 효종이 41살의 젊은 나이로 죽지 않고 재위했다면 그가 품었던 북벌은 현실 정책으로 이어졌을까류의 가정도 존재합니다. 지금껏 효종의 북벌론은 민족주의적 시각에 의해서 지금껏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북벌론의 이념과 명분은 긴 시간 동안 조선 사회를 지배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사회가 북벌의 굴레에서 해방돼 북학(北學) 사상이 만개하기까지는 꼬박 150여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북벌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조선 후기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북벌이 정책적으로 존재하였는 지의 여부조차 합의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북벌의 연구가 당대의 시각이 아닌 근대적 또는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해석된 경향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북벌의 근거가 되는 악대설화의 재구성을 통해 북벌이 실존한 정책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북벌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북벌을 당

대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당대 효종에게 놓여진 현실 정치 상황과 효종 내면의 상황을 바탕으로 북벌을 당대의 맥락에서 구현해보고자 합니다.

북벌을 당대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벌을 당대의 맥락에서 이해하였을 때만 비로소 북벌에 관련된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후속절차로서 북벌이 갖는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효종은 즉위 직후 북벌을 표방하고 재위 기간 동안 일관성있게 북벌을 추진했습니다. 그 기저에 ‘송명반청(崇明反淸)’의 이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효종의 즉위는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를 갖습니다.

효종 사후에는 문화적 관점의 조선중화주의가 계보화되었습니다. 만동묘에서 신종과 의종의 제사를 모신 것은 그들이 명나라 황제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북벌을 추진하여 춘추대의를 밝힌 조선의 효종에 의해 중화 문화의 적통이 이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만동묘에는 혈통이나 지역적 요소가 아닌 ‘의리의 실천’이라는 문화적 행위에 따라 중화를 계보화하려는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북벌을 기준으로 조선 후기 사회를 지탱하던 성리학이 관념화되고 사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벌정책의 진위 논란

북벌정책의 진위 논란은 「악대설화(幄對說話)」가 세상에 공개된 시점에서 비롯됩니다. 효종이 붕어하기 전 송시열과의 독대 기록인 기해독대에는 북벌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숙종 1년(1675)이었는데 그 시점이 기해독대가 16년이 지난 시점이고, 공개한 상황 자체가 숙종 초반 송시열이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했다는 죄목으로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측근들이 「악대설화」를 세상에 공개하여 곤경을 모면하자고 제안했다는 연유로 북벌의 진위성이 의심되었습니다.

또한, 「악대설화」에 나타난 기해독대의 내용을 보면 북벌정책을 바라보는 효종과 송시열의 시각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송시열은 효종의 북벌정책에 대해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제갈량이 살아돌아와도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같은 송시열의 평가를 바탕으로 북벌정책은 당시에도 현실성이 굉장히 낮은 정책이었으며,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기해독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효종과 송시열이 북벌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별됩니다. 먼저 효종의 북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대사를 말하자는 것이오, 저 오랑캐는 반드시 망하게 될 형편에 처해 있소. 예전의 칸은 그 형제들이 매우 번성했었는데 지

금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예전의 칸은 인제가 매우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 용렬하며, 예전의 칸은 오로지 무예와 전쟁만을 숭상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무사(武事)를 폐하고 자못 중국의 일을 본받고 있소.(중략)

그러므로 정예화된 포병(砲兵) 10만을 길러 자식처럼 사랑하고 위무하여 모두 결사적으로 싸우는 용감한 병사로 만든 다음, 기회를 봐서 저들이 예기치 못하였을 때에 곧장 관(關)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오. 그러면 중원의 의사(義士)와 호걸 중에 어찌 호응하는 자가 없겠소. 아마 곧장 관으로 쳐들어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오. 저들은 무비(武備)를 힘쓰지 않아 요동(遼東)과 심양(瀋陽)의 천 리 길에 활을 잡고 말을 타는 자가 전혀 없으니, 우리가 쳐들어가면 무인지경에 들어가듯 할 수 있을 것이오. (중략)

또 우리나라에서 잡혀간 수만 명의 포로가 그곳에 억류되어 있으니, 어찌 내응하는 자가 없겠소. 오늘날의 일은 과단성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뿐이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오.”

- 『송자대전』 잡저(雜著) 악대설화(輦對說話)-

효종은 청나라가 무(武)를 숭상하던 이전 문화와 다르게 문(文)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으며, 조선이 군비를 확장하여 기병한다면 명나라의 유민들과 포로들이 가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종의 북벌에 대해 송시열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합니다.

“전하의 뜻이 이와 같으시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로 천하 만대의 다행이다. 그러나 제갈량(諸葛亮)도 능히 성공하지 못하고서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세상사이다.’라고 말하였다. 만에 하나 차질이 있어 국가가 망하게 된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 『송자대전』 잡저(雜著) 「악대설화(幄對說話)-

앞선 대목에서 송시열은 북벌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기해독대의 전반부 내용을 보면 송시열은 북벌을 위해서 먼저 나라 안부터 기강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위, 송시열의 입장은 “네 왕권이나 관리하고 북벌을 추진해라”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송시열은 효종에게 ‘수신’의 자세로 먼저 자신을 수양할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강빈과 김홍욱의 옥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대학의 8조목에서 수신의 다음이 제가, 치국, 평천하임을 고려해보면 송시열이 보기에 효종은 북벌을 너무 염두한 나머지 일을 순리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빈과 김홍욱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일과 어떤 관련이 있기에 송시열은 북벌을 위한 효종과의 대화에서 이 둘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 두 왕자가 볼모로 있던 문연각 앞에서

효종의 콤플렉스 : 강빈과 김홍욱

강빈과 김홍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효종이 가진 콤플렉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효종은 즉위기간 동안 두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정통성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산림과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효종은 본래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고, 죽은 소현세자에게는 세 명의 세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봉림대군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소현세자와 인조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인조의 뜻과는 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성리학을 비롯한 유교의 학문을 수양하지 않고 다른 잡학(雜學)에 심취하고, 청의 중요 인물들과 교류하기 위해 많은 물자를 사용하면서 인조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실록을 보면 인조가 청의 압박과 청의 세력을 업은 소현세자를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기록이 발췌됩니다. 청은 병자호란 후, 인조를 길들이기 위해 ‘소현세자 카드’를 교묘히 활용했는데 인조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볼모인 소현세자를 즉위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청이 소현세자를 활용하여 인조를 견제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내 당시 인조로서는 정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39년 7월 청은 명의 금주(錦州) 공략을 앞두고, 조선에게 병력과 함선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선은 이에 대해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청은 ‘왕위 교체론’을 흘리면서 인조를 협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의 ‘왕위 교체론’에 인조는 상당한 심적 압박을 받았고 아들인 소현세자를 정치적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현세자가 귀국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1645년(인조 22)에 4월에 사망하고 5월에 봉림대군(효종)이 귀국하게 됩니다. 같은 해 6월 인조가 세자 책봉을 이유로 대신들을 불렀는데 여기서 봉림대군을 세자로 할 뜻을 밝힙니다. 좌의정 홍서봉을 비롯해 영중추부사 심열, 판중추부사 이경여, 우참찬 김육, 이조판서 이경 등의 대

신들은 소현세자의 적장자인 원손이 종통을 계승해야 옳으며 또한, 원손이 학문에 영민한 데다가 실덕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동조하지 않았지만, 낙홍부원군 김자점, 영의정 김류가 인조의 뜻에 동조하고 인조는 장성한 군주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사관에 기록에서도 봉림대군의 세자 책봉이 공론이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된 것이라고 한 대목이 드러납니다. 봉림대군 역시 원손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자신의 세자 책봉을 거둘 것을 요청하지만 인조는 특별히 과거 “만형이 죽으면 그 다음 아우가 계통을 잇는다.[兄亡弟及 형망제급]”는 예를 썼다며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인조는 세자의 지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죽은 소현세자의 처였던 강빈을 옥사로 죽이고 서인으로 강등시켜 소현세자의 세 아들에 대한 왕위 계승권을 박탈하면서 유배를 보냅니다. 이렇게 잠잠하게 끝날 것 같던 강빈과 관련된 문제는 효종 3년(1652). 4월 26일 민정중이 재해문제에 관해 상소를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이 오랫동안 가까운 반열에서 모시고 있었으나 도움을 드린 바가 없던 차에, 마침 하늘이 재해를 내려 경계를 보여 가뭄이 매우 참혹한 시기를 만나 성상의 심기가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밤낮으로 편치 못해 하시다가 전지를 내리시어 해결책을 구하시는 등 정성이 지극하셨다. (중략) 두 역적이 법의 심판을 받아 간소한 죄가 모두 드러나니 사람들은 더욱 당혹해 하며 모두가 두 역적이 속여가지고 그 옥사를 일으킨 것이라고 한다. (중략) 진실로 의혹스러운 단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천륜(天倫)의 지극한 정에 필시 애처로움이 배나 될 것이니, 신생(辛生)을 엄하게 국문하여 그들로 하여금 즉시 원한을 풀게 하고, 만일 역모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시비를 결정하여 온 나라 사람들의 의혹을 말끔히 제거하소서."

- 효종실록 3년 4월 26일 -

이 상소를 읽은 효종은 분노하면서 직접 민정중과 독대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상법으로 말하면 그대는 중죄를 면하기 어려우나 내가 이미 구언을 하였고, 그대가 진달한 것도 생각한 바를 반드시 진달하겠다는 뜻에서 나왔으므로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윽고 몇 차례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효종이 직접 나섰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민정중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민정중의 상소 이후, 효종은 불안을 느꼈는지 같은 해 6월, 강빈의 옥사에 대해 발언하는 자는 역적이라고 규정하며 엄포를 내립니다.

이렇게 강빈에 문제에 대해 엄포를 내린 이후, 한동안 강빈의 문제는 조용해지는 듯했으나 1654년 황해감사 김홍욱이 응지상소의 형식을 빌려 강빈의 신원 문제에 대해 언급하게 됩니다. 김홍욱의 내용을 요약하면 당시 궁중은 화목했는데 강빈이 무슨 원한으로 그 역모를 꾸미냐는 것이고, 저주가 실제로 행해졌다면 심양에서부터 비복을 시켜 흉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 기밀이 누설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것으로 강빈의 신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홍욱의 상소에 진노한 효종은 체포를 명하며 김홍욱이 한양에 압송되자 친국을 개시합니다. 김홍욱은 효종 연간에 가뭄, 서리, 태풍, 폭설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으며 이에 구언교를 내렸고 응지상소를 통해 고칠 점은 고치고 어떤 의견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이미 공표한 바가 있었기에 본인도 이 말에 착안하여 응지상소를 올린 것이라 해명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구언은 나라에 재난이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왕이 널리 의견을 구하는 명령을 말하고, 구언교에 응답하는 상소를 응지상소라 하였습니다. 왕은 응지상소에 내용에 경청해야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기에 대신들 모두가 김홍욱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효종은 자신의 위신을 먹칠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해 한 치의 양보와 타협도 없었습니다. 김홍욱의 죽음 이후, 강빈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효종은 사대부의 중론을 무시하는 걸주와 같은 폭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구언과 응지상소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던 효종의 의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홍욱 사건 이후 효종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김홍욱의 죽음 이후 응지상소가 대폭 감소했는데, 감히 왕에 대해 목숨을 걸고 간할 용기를 가진 자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조판서였던 조경은 이런 사태를 비판하며 ‘김홍욱 옥사에서부터 대간은 입을 다물고 있는 습관이 조장되었으며, 언로가 막히고 아첨하는 풍조를 이루었다.’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이런 종류의 상소가 빗발치고, 효종이 시행하려 한 정책들이 산림을 비롯한 대다수 관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급속도

로 위촉되게 됩니다.

효종과 산림

즉위 후 효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산림들을 중앙 정계로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송시열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산림은 과거와 제한적인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달리 재야에서 높은 학문적 지식과 명망을 가진 사람들을 왕이 불러서 중앙 정치에 참여한 인물들 및 세력을 부르는 용어로 보편적인 관료 등용 방식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의 등용 방법으로 관료가 된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효종은 산림을 불렀을까요. 당시 현실 정치의 실력자는 김자점으로 효종 자신을 세자로 옹립하는데 기여한 결정적 인물이고, 인조가 강빈을 옥사하는데 동조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왕위계승과 강빈 옥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산림보다는 김자점을 우군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효종은 김자점과의 연대는 곧 전체 사대부와의 관계단절을 의미하였기에 산림의 진출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효종은 즉위 초부터 산림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며, 인조 대의 권신들과 친청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시작은 영의정 김자점에 대한 김홍욱의 탄핵이었습니다. 김홍욱은 김자점에 대해 선왕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사리사욕만 채우면서 조정을 유린

했다고 고발하였는데, 이에 많은 대간들이 동조했지만, 효종은 선왕의 원로대신을 탄핵할 수 없다며 김홍욱과 이석을 체차시켰습니다.

그러자 체차를 반대하는 상소가 승정원과 대간에서 빗발쳤고 양사에서 김자점의 죄목을 들면서 파직하기를 간하자 효종은 마지못해 김자점을 파직하고 귀양 보내게 됩니다. 김자점의 탄핵에 성공하고 많은 인물들을 산림세력과 대간에서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효종은 상당 부분을 다 윤택하는데 효종 또한 김자점 세력이 자신에게 있어서 흠이 될 수 있었기에 강력하게 김자점을 옹호할 수 없었고, 김자점의 탄핵이 자신의 즉위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기에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자점은 이후 효종 2년 11월, 인조의 후궁인 조 귀인(소용 조씨)의 저주사건과 연루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김자점과 그 일파의 옥사로 사사된 이 사건은 친청세력의 완전한 절멸을 의미했고, 효종에게도 자신의 왕권 강화에 대한 저해세력이 사라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효종 2년에 접어들 때, 적극적으로 조선 내정에 간섭하면서 강경책으로 일관했던 섭정왕 도르곤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 사건 이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청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면서 간섭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이는 조선에 대한 외교노선을 변경하게 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청의 간섭이 줄어들고, 김자점을 필두로 하는 친청세력이 사라지자 안정된 왕권의 기반이 만들어졌고, 이 때를 기점으로 효종이 의도한 본격적인 군비증강과 군사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효종과 북벌

효종 2년(1651) 12월에서 3년(1652) 2월, 친청세력의 거두이자 왕권강화의 걸림돌이 되는 권신인 김자점이 사사되고, 섭정왕 도르곤이 사망하자 이에 따른 청의 외교 노선의 변화가 생겨 간섭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효종의 군사정책은 김자점이 축출당한 효종 3년부터 적극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사실 효종은 즉위 초부터 군사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즉위년(1649) 11월, 변방 방비가 허술하여 군사들의 기강을 잡는 것을 명했고, 효종 1년(1650) 7월, 중앙과 지방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시방을 수어사로 임명하여 충청도의 군사를 수어청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개혁의 내용은 충청도의 군사를 경기지역과 바꾸고 충용사 소속 죽산영을 남한산성에 편입시킵니다. 또한, 충주와 청주의 군사를 본도로 소속시키면서 남한산성의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조치도 취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청은 효종 1년 8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칙서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국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성을 수리하고 군사를 모으고 병기를 정돈한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한 것이 한두 번 정도가 아니었다. 그대의 선왕(先王)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몇 번인지 모른다. (중략) 성을 수리하고 군사를 모으고 병기를 정돈하는 등의 일은 원래 왜국과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집(朕)과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성지(城池)를 수리하고 병마(兵馬)를

불러 모으고 기계를 정돈하는 것은 교묘하게 속이는 처사로서 예절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짐은 그에 대비할 따름이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 효종실록 1년 8월 27일 -

실제로 청은 효종 1년에 7번, 효종 2년 초에 4회나 사신을 파견한 정황으로 보아 일정 부분 효종의 군사정책을 어느 정도 감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효종은 섭정왕 도르곤이 사망하기 전까지 청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효종은 친청파의 몰락과 섭정왕 도르곤이 사망하자 본격적으로 군사정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효종은 중앙군 정비와 증강책을 추진합니다. 효종 3년 6월 조정 대신들과 어영군을 증치시키는 것을 논하는데 인조 시기의 4천 명이었던 정예군이 이완을 시켜 6천 명으로 증강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같은 해 8월 청나라의 기병에 맞서 금군을 모두 기병으로 바꿀 것을 박서와 논의하며 내삼청을 정비하여 좌별장과 우별장이 전담하게 합니다. 그리고 9월 궁수와 포수를 반반씩 하는 대오를 갖추게 하여 포 중심의 병력 구조에서 재편을 명합니다. 효종 6년(1656) 4월에는 재정을 걱정하지만, 금군의 군의 숫자를 629명에서 371명을 충원해 1천명 규모로 확장시킵니다.

중앙군 정비와 더불어 효종은 지방군에 대한 정비와 개혁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박서 때 언급했던 영장제도의 부활을 꼽을 수 있는데, 영장이란 지방군의 지휘와 훈련의 책임자로 박서가 효종 4년 부활을 건의했고 5년 원두표가 삼남에 영장을 파견하여 군무를 전적으로 맡길 것을 건의하면서 삼남에 파견된 영장 외에 다른 지역에서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겸영장제를 시

행하게 됩니다.

인재양성과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시행한 관무재를 시행한 것도 주목해야할 부분입니다. 관무재는 병자호란 이후 중단된 것이었는데 효종이 이를 부활시키면서 매년 관무재를 시행하였고 효종 5년에는 노량과 춘당대에서, 7년에는 광릉에서 환궁하는 길에 열병식을 거동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효종은 군사재정을 마련하는 것에도 집중하였습니다. 효종 6년 노비추쇄(奴婢推刷)를 추진하며 노비추쇄도감을 설치하고 각 도에 어사(御史)를 보냅니다. 명부에 적힌 노비는 19만이었지만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물인 신공(身貢)을 내는 자는 2만 7천명에 불과해 나머지 노비들을 찾아내서 군비를 확충하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동법도 재정에 큰 도움을 줬는데 효종 3년엔 충청도에, 9년(1658)에는 전라도 연해에 시행하여 일정 부분 재정확보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군비 증강책은 조정관료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유로는 각종 정책이 갖는 비효율성도 있었지만, 강빈과 김홍욱 사건으로 인해 지지기반이 취약했고 여기에 더해 효종 치세 내내 자연재해가 극심했습니다. 각종 상소에는 백성들이 잦은 부역과 군사훈련으로 원망이 심해 그 폐단이 수없이 많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능에 거동하시는 것이야 비록 정지하였지만 열무를 바야흐로 거행하게 되어, 초췌한 경기(京畿) 백성들이 이미 도로를 정비하는 일에 고생하고, 굶주린 방민(坊民)들이 강가의 부역에 지탱할 수가 없으니, 백성들이 어찌 원망하고 비망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임금의 과오는 일식 월식과 같아 과오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

두 알고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우리러보는 것이다. 이 사람이 어가를 수행하는 여부는 참으로 하찮은 일이지만, 과오에 대하여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것은 관제 되는 바가 적지 않으니, 어리석은 마음으로 연모하는 생각에는 거의 고치리라는 희망이 있다. 동료들에게 간통(簡通)을 보내 도로 거둬들이시라는 주청을 진달하려고 하였는데, 동료들의 의논이 어렵게 여기니 신이 경시를 당한 소치가 아님이 없다. 신의 관직을 체차하소서.“

- 효종실록 5년 3월 3일 -

마치며

효종은 즉위 초반, 산림을 등용했고 그들이 친청세력들을 축출하며 북벌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섭정왕이었던 도르곤이 사망하자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신의 정통성 문제에 닿아있는 형수 강빈 문제를 해결하면서 김홍욱을 옥사시켰고 이로 인해 정통성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요약하면 효종은 즉위시기부터 일관되게 북벌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자신이 놓인 현실 정치 무대에서 정통성을 둘러싸고 북벌정책 실현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앞선 정통성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북벌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참고문헌

이경찬. 1988. “조선 효종조의 북벌운동.” <청계사학>,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우경섭. 2018. “악대설화와 효종의 비밀 편지.” <한국학연구> 제
50집 219~244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공식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main/main.do](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중국정사 조선전.

[http://db.history.go.kr /item/level.do?itemId=jo](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o)

중일전쟁 초기 마오쩌둥의 전략과 마음 사이 _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장지영

이화여자대학교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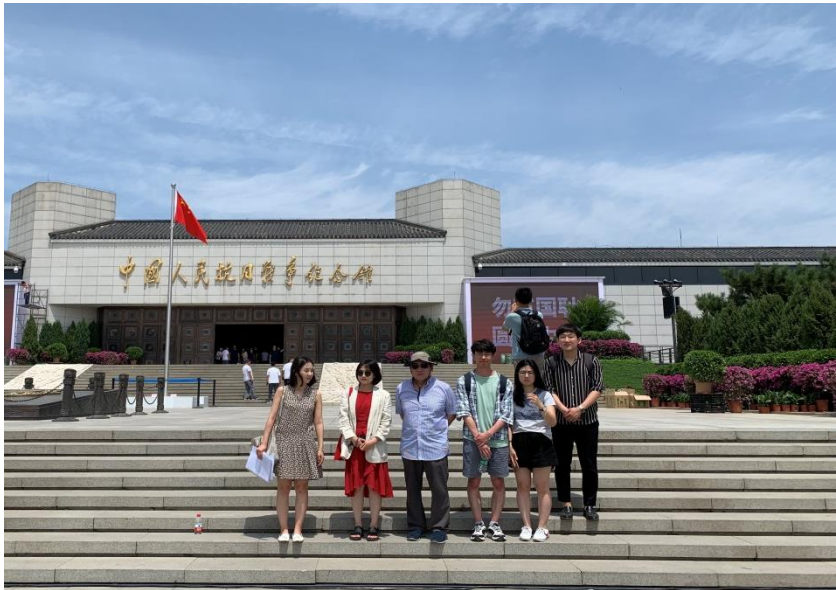
중국을 알자. 그것이 우리의 수업과 답사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중국을 구성하고, 중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공산당을 빼놓고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이라는 추상적인 단일국가 행위자가 국제관계에서 펼치는 수들을 읽고 내다보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외세에 반응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로 말미암은 정책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함과 동시에, 중국 내 국민들의 반일감정 혹은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중국이 현대에 들어 치른 주요한 전쟁, 중일전쟁(2nd Sino-Japanese war, 1937-1945)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일전쟁은 열강의 중국 원조와 연합군 진영의 승리에 힘입어 중국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힘과 구조의 결과물로 보여지는 태평양전쟁의 일부로 쉽게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중국 내부 행위자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서로 총구를 겨누던 두 적대적인 행위자가 외세에 대항하여 협력해가는 과정은 흥미롭다. 국내 여러 정당들 간 으레 있는 의견대립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당시 중국 정부의 정당성을 누가 가져오느냐를 두고 군사적인 대립도 서슴지 않던 치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과의 동침’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모택동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오쩌둥은 개인적인 권력에 눈이 먼 전략의 귀재였는가, 아니면 중국과 인민의 발전을 꿈꿨던 민족주의자였는가? 중일전쟁에서 마오쩌둥은 중국 내 세 행위자들과 왜 연합하였는가? 국민당, 공산당, 인민, 당시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는가? 중일전쟁의 중국식 정식명칭이 ‘중국인민항일전쟁’인 만큼, 중국에게 당시 ‘항일’은 중국을 연합하게 하는 핵심과제였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중일전쟁을 거치는 와중에도 국공내전과 연합을 반복했다는 점,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내전중지와 정부간 협력을 요구했다는 점 등을 보면 단지 외세가 침략했다는 이유 하나로 당연히 중국이 내부 단결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일전쟁 시기에 중국이 하나로 연합하게 된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생생히 그려보려면, 모택동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선택했던 이성적인 ‘전략’과 그 속의 ‘마음’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잘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비대칭전쟁으로서 중일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군사적인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후, 장융(Chang Jung)과 존 헬리데이(John Halliday)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마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에드가 스노(Edgar Snow), 존 서비스(John Service)의 중국 방문기록을 통해 마오쩌둥의 진심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비교하고 상상해보도록 한다.



▲ 답사 마지막 날,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을 들어가며

우리는 이러한 사전조사와 목적을 가지고 ‘중국 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원래 둘째날 오전 방문 예정이었는데, 동선을 고려하여 마지막 날, 마지막 스케줄로 방문일정이 변경되었다. 막바지에 이르자 모두들 체력이 다소 떨어진 듯 했는데, 게다가 흐렸던 날씨까지 맑아지면서 우리를 더욱 집중하기 힘들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중국을 더욱 알고자, 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진심을 알고자 마지막까지 힘을 내었다.

마오쩌둥의 전략읽기

비대칭 전쟁으로서 중일전쟁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을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중일전쟁의 대표적인 전투들을 위주로 개괄적인 설명이 되어있었다. 중일전쟁은 당시 중국과 일본이 매우 비대칭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대칭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이 어떻게 전략적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많이 연구되었다. 보통 비대칭전쟁에서 두 국가가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의 크기나 인구 등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의 크기를 가지고 구분하게 된다. 중일전쟁 직전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중일전쟁이 비대칭전쟁이었음을 더 명백히 알 수 있다. 당시 육군병력을 비교하면, 일본이 38 만명,

중국이 200 만명, 해군은 일본이 285 척, 배수량 115 만여톤, 중국은 120 척, 배수량 6.8 만여톤, 공군(항공기)은 일본이 1600 대, 중국이 600 대를 보유하고 있었다.¹ 중국이 육군병력 면에서는 일본보다 앞섰지만, 해군과 공군력에서는 일본이 월등히 우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해군은 중국 해군보다 17 배 규모였고, 공군력도 기술상의 우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중국보다 3 배정도 규모가 컸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 육군의 병력이 일본보다 5 배 정도 많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병력 규모의 차이가 바로 전장에서의 전투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중일 간의 육군 전투력을 비교하기 위해 편제 인원과 무기 및 장비 등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월등하게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 당시 사용된 무기들이 바닥에 전시되어있다.

¹ 何应钦,《抗战时期军事报告》,上海书店,1990,p.38

심지어 이러한 군사력 비교는 중국이 내부적으로 단결되어 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만약 정치와 군사조직력, 군대 내부의 단결과 사기 등의 요소를 더 감안한다면 양국의 군사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사실 당시 중국의 지방군은 명의상으로 중앙의 지휘를 받고 있었지만 실제 부대의 지휘권한은 지방의 실력자들에게 있었고, 이들 부대들은 개편된 중앙군과 비교할 대 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다. 특히 군대의 군수 보급과 인원보충 등의 각 방면에서 취약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중국군이 일본군과의 정면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비대칭전쟁인 중일전쟁에서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전략

중일전쟁을 연구한 논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념관에서 역시 각 행위자들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은 많지 않았다. 다만 당시 중국이 일본을 어떻게 이겼는지 전략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있었는데, 마오쩌둥과 장제스가 선택한 전략들을 우선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시 중국이 ‘지구전’ 전략을 택하는 과정에서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발걸음을 살펴본다.

중국의 안보전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민전쟁’이라는 것인데, ‘적이 공격해 올 경우 최전선에서 싸우는 정규군뿐 아니라 후방지역에 위치한 전 인민이 마찬가지로 일치단결하여 광범위한 저항을 전개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국가수준의 전략이다. 정치, 군사, 외교,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이루어 지는 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지구전 전략은 그 하위 전략인 군사전략으로서 순수하게 군사적인 개념이다. 즉 지구전 전략은 중국의 광활한 영토와 험준한 지형,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이용하여 적과의 결전을 회피하고 궁극적으로 역량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때 인민전쟁은 정부와 군이 허약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민’의 참여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한 전략방침이었다. 그리고 지구전 전략은 인민전쟁을 구현하기 위해 순수하게 군사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오쩌둥은 지구전의 긴 과정을 세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1 단계는 적이 전략적 공격을 하고 홍군이 전략적 방어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아군은 적보다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퇴각을 단행한다. 이 때 이루어지는 전략적 방어란 별다른 저항 없이 뒤로 물러서기만 하는 소극적 방어를 지양하고 적에게 부단한 기습을 감행하는 적극적 방어를 말한다. 2 단계는 전략적 대치단계로 적이 전략적 수비를 하고 아군이 반격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3 단계는 아군이 전략적 반격을 하고 적이 전략적 퇴각을 하는 단계로 결전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1934 년-1935 년간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대일태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중일 간의 군사력 격차는 국민정부가 직접적으로 일본에 군사적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군사력 증강은 군대의 규모만을 확대한다고 해서 바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정부가 일본의 군사력을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렇지만 1935 년 이후부터 화북에서 일본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하게 증대되었기 때문에 국민정부는 즉각적으로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일전쟁 초기 중국정부의 지구전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당시 중국의 군사고문단장으로 부임한 팔켄하우젠은 1935 년 ‘현 시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안을 국민당정부에 제출한다. 팔켄하우젠은 베를린대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하였고, 1912 년에는 일본에서 무관임무를 수행하였었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 ‘현 시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안에 따르면, 팔켄하우젠은 “현재 중국에 가장 위협적이고 가까운 적은 당연히 일본이므로 마땅히 대응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 육군으로는 현대전을 담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구전을 이용하여 일본군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구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팔켄하우젠이 중국 육군의 무기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중국 육군이 일본 육군을 상대로 정상적인 정면대결을 수행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중국군에게 지구전을 수행할 것을 조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팔켄하우젠이 말한 지구전은 본인의 강연록에서 ‘차례차례 저항하고 싸우면서 퇴각하여, 공간의 양보를 통해 시간의 연장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군이 우세할 때에는 때때로 적과의 접전을 유도하나, 아군이 열세할 때에는 적이 만약 강력하게 공격을 한다면 어떤 한 지역에서는 당면의 적을 지체시키고 다른 방면에서는 주력 결전의 승리를 유도하고 차후 적에 대한 결전의 기도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아군에게 유리한 선으로 적 작전을 유도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² 따라서 팔켄하우젠이 말한 ‘지구전’이란 단순히 공간을 양보하면서 시간을 획득하여 전쟁을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주 결전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제스가 실제로 전투에서 실행한 전략은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었다. 1937 년 7 월 루거우차오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은 3 개월 이내에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속전속결을 추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민당 지도부가 구상한 항일전략은 팔켄하우젠이 조언했던, 중국의 거대한 인력과 광활한 영토, 그리고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구소모전’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1930 년대 초부터 장제스는 일본의 대륙침공을 예상하면서, 군사적으로 우세한 적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간과

² 军事委员会军令部第一厅第四处, 《抗战参考丛书》, 1939

시간을 맞바꾸는 원칙에 입각하여 전쟁을 최대한 지연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제스의 항일전쟁 전략은 ‘퇴각’이 아니라, ‘강한 적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전쟁을 지연시키려는 계획이었다.

장제스의 전략은 상하이전투에서 그대로 실현된다. 그의 전략적 선택은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이와 난징을 잇는 지역에 마련된 진지에서 사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제스의 판단과 달리 전쟁이 발발한 시점은 중국에 불리했다. 일본군은 상하이에 2개 사단을 상륙시킨 데 이어, 9월 중순까지 6개 사단 약 20만명의 병력을 투입하였으며, 전함, 항공기, 전차, 포병과 특수부대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다. 최초 일주일간은 중국 군이 일본군의 공세를 저지하며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듯했으나, 중국국군의 사상자는 당시 13만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의 실패는 난징전투에서도 잘 보여진다. 국민당 지휘관들은 그들의 수도를 사수하는 데만 골몰하여 중앙군을 무모하게 투입함으로써 방어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최정예 전투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난징은 함락되었다. 그리고 일본군의 7주간의 무자비한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난징이 함락되기까지 약 3개월동안 발생한 일본군 사상자 수가 4만인데, 중국군은 27만에 달했다. 중국군 사상자는 이 전투에 투입한 국민당 군대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로 장제스의 결전추구가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제스가

중국군의 최정예 부대인 중앙군을 투입함으로써 전력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국민당정부가 ‘정면적 대응’을 통한 ‘지연전’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것은, 소련과 미국 등을 포함한 서구 강대국의 개입이었다. 하지만 전쟁초기의 국제관계는 오히려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아직까지 일본은 소련에 대한 전면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고, 미국, 영국 등도 중립정책을 표방하고 있었다. II. 중일전쟁 개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영국과 미국이 일본의 군사행동을 비난하였지만,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군수품과 전략자원들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적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는 단독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국제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전쟁을 지속해야 했던 중국은 난징함락 이후, 일본이 불확대방침을 유지하여 잠시 소강상태가 유지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전시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전시체제를 정비하면서 1938 년 장제스는 ‘사수결전’에서 ‘지구소모전’으로의 전환을 발표한다. 팔켄하우젠이 주장한 ‘지구전’의 개념은, 당시 국민당내에서 논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내에서도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인민전쟁과 지구전을 주장하면서, 이를 통하여 당시 혁명전쟁(국공 내전)과 항일전쟁(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했던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8 월 22 일 산시성에서 회의를 열고 작전지침을 마련했다. 상하이전투의 결과 일본은 중국의 3분의 1 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마오가 주장한 지구전에

따르면 1 단계인 전략적 방어의 단계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한 셈이었다. 일본군이 7 주동안 난징에서 지체함으로서 일본이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한 채, 전쟁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장제스의 결전추구 전략 때문이 아니라, 일본군의 과감한 전과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이 보여준 2,3 단계는 기습을 통해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적의 전투력을 분산시키며,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신속한 해결’을 좌절시키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은 이 단계에서 시행해야 할 작전으로 적의 병참선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적의 수송을 방해함으로써 정규군의 작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1940 년 8 월부터 12 월까지 시행한 백단대전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공산당 팔로군은 일본군 점령지역 후방에서의 대규모의 교통파격전, 즉 철도나 도로를 파괴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을 추진했다. 이러한 일본의 후방작전은 상대적으로 전방에서의 전투력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 단계가 적군과 아군의 역량의 변화를 일으켜 전략전 반격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보냈다면, 3 단계는 아군이 전략적 반격을 하고 적이 전략적 퇴각을 하는 단계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이 참전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일전쟁의 결정적인 승리가 강대국의 참여로 인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군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부하면서 약 9 년

동안의 항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지구전’을 통한 전략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³

마오는 중일전쟁 당시 정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역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전쟁의 끝을 예측할 수 없으며, 심지어 국제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이 있어야만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오의 지구전 전략은 일본 제국주의의 무기가 압도적으로 강한 상황에서 단기전 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마오가 ‘인간’이라는 요인을 강조한 것은 적의 무기에 굴복하지 않는 중국 인민들의 의지를 고양시킴으로써 군사력 균형을 전환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아군의 역량을 강화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 마오쩌둥이 국민당을 상대할 당시 다른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확고하게 지구전전략을 밀고 갈 수 있었다.

³ 박창희, 《현대 중국 전략의 기원 : 중국 혁명전쟁부터 한국전쟁 개입까지》, 플래넷미디어 2011, p.124

마오쩌둥의 진심읽기

괴물 마오쩌둥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일전쟁이 시작할 기미가 보일 무렵부터, 마오쩌둥은 공산당의 입지를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공동의 적인 일본을 상대해야 하는 두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장융(Chang Jung)과 존 헬리데이(John Halliday)는 그의 책에서 38 개국, 363 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마오쩌둥에 대한 그동안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려 놓았다. 마오쩌둥은 무엇보다 공산당 내에서 개인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 혈안이 되어 개인적인 권력욕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고 하였다.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

이를 잘 보여주는 첫번째 일화가 그의 책에 소개된다. 1930년대 초 마오쩌둥은 장시성에서 공산당 지역책임자로 성장하였으나, 공산당 중앙의 영도자들이 이 지역으로 밀어닥치자 마오쩌둥은 섬서성 지역으로 밀려 내려왔다. 당시 섬서성 북부 지역민의 존경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혁명근거지를 이루고 있던 류즈단은 앞서 밀려내려 온 중앙 공산당 세력에 감금당해있던 때였다. 1935년 공산당 특사들은 류즈단을 ‘홍군을 말살하기 위해 홍군 근거지를

세운' 장제스의 첩자라는 죄목을 씌웠다. 당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한 그의 태도는 충성심의 발로로 인정받기는커녕 불리하게 작용하여 그는 '당이 그를 신임하도록 기만 전술을 쓰는 교활한 인간'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이 무렵 마오쩌둥이 도착한 것인데, 관대한 중재자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였다. 그는 체포와 처형을 연기하라고 지시했고, 11 월 말 류즈단과 그의 동료들을 석방했다. 류즈단 일행에 대한 숙청은 '중대한 실책'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2 명의 희생양이 견책을 당했다. 이리하여 마오쩌둥은 지역 공산당 지도부를 파괴하는 동시에 그들을 구원한 사람으로 자신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마오쩌둥은 그들의 근거지를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숙청 덕분에 류즈단과 그의 동료들은 마오쩌둥이 나타날 무렵 이미 충분히 겁을 먹었으며 (류즈단은 무거운 족쇄를 찬 후 간신히 걸을 수 있었다.) 마오쩌둥은 큰 저항도 받지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 및 주요 군사 보직에서 그들을 축출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통치에 정통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류즈단의 이름을 이용할 심산이었으므로, 자신이 류즈단을 숙청하는 것으로 보이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류즈단이 그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그를 살려 둘 생각도 없었다.

새 근거지에 자리를 잡자마자 마오쩌둥은 보급품과, 특히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 소련 관할의 국경으로 진출하는 통로를 열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황허를 건너 동쪽에 있는 훨씬 부유한 산시 성으로 들어가 새로 병력과 보급품을 획득하고, 가능할 경우 근거지를

건설한 다음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소련 관할의 외몽골로 진출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그 원정은 1936 년 2 월에 시작되었다. 공산당은 대장정을 이야기할 때 그 목표가 일본군과 싸우는 것이라고 내세웠으며,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동쪽으로 간다’와 같은 구호를 내걸고 ‘항일전위대’를 자처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선전이였다. 마오쩌둥의 군대는 일본군에게 접근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 원정에서 소규모 전리품과 소수의 신병을 얻었으나 금세 장제스 부대의 반격을 받아 황허의 서쪽까지 격퇴당했으므로 몽골 국경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류즈단은 이 짧은 작전 기간 사이에 사망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 서른셋이었다. 몇몇 역사책에 따르면 그는 전투 중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증거는 그가 살해되었음을 시사한다.⁴ 마오쩌둥은 관대한 중재자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유력한 지역지도자를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통성과 권위를 세우는 데에도 성공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자신의 개인적인 야욕을 드러내지않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한 사례는 에드가 스노(Edgar Snow)와의 만남에서도 잘 나타난다. 마오쩌둥이 개인적으로 남긴 글들만을 통해 그의 진심을 읽기가 어려워 가장 먼저 택한 것이 그가 만나 인터뷰한

⁴ 장융, 존 헬리데이, 《마오(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까치, 2006, p.232-233

사람들과 남겨진 글,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저널리스트 에드가 스노였는데, 마오쩌둥과 스노와의 만남은 스노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오가 이를 정치적으로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 공산당과 개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마오쩌둥이 자기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데 비해 장제스의 아들에 대한 태도는 편집증에 가까웠다. 스탈린이 장징궈를 아직 억류하고 있던 1937 년 2 월, 아들의 귀환을 간절히 원한 장제스는 또 다른 혜택을 중국 공산당에 베풀었다. 그는 공산당의 고정간첩인 사오리쯔 (1925 년 장제스의 아들을 소련에 데리고 갔다)를 국민당 선전부 부장으로 임명하여 언론을 담당하게 했다. 사오리쯔의 업무는 격렬한 반공적인 여론과 언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의 임명은 모스크바에 대한 매우 커다란 우호의 제스처였다.

이때부터 소련은 언론의 광범하고 열성적인 보도대상이 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온건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름이 되었을 때 사오리쯔와 마오쩌둥은 마오쩌둥을 선량하고 친절한 인물로 묘사하는 자서전 출간을 구상했다. 이 자서전에는, 마오쩌둥이 대일 항쟁에 전념한 것으로 묘사한 각종 선언문이 부록으로 추가되었다. 마오쩌둥은 열성적인 애국자의 어조로 다음과 같은 제사를 썼다.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싸웠다.’ 이 자서전은 11 월 1 일에 출판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마오쩌둥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산군이 중일전쟁에 가장 헌신적이라는 신화가 탄생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 수만명이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이 신화 덕분이었으며, 이때 입당자 중에는 훗날 마오쩌둥 정권에서 요직을 맡게 될 사람이 다수 포함되었다.

〈마오쩌둥 자서전〉은 주로 1936 년 여름 마오쩌둥이 미국 언론인 에드거 스노와 가진 회견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마오쩌둥이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광범하게 설명한 것은 이 때 뿐이었다. 스노는 또한 자신의 저서 〈중국의 붉은 별 (Red Star Over China)〉을 출판했다. 마오쩌둥 및 다른 고안당원들과의 인터뷰에 압도적으로 의존한 이 책은 피에 젖은 공산당의 전력을 말소하고 공산당 복권의 기초를 만들었다.

마오쩌둥이 스노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해 봄 마오쩌둥은 자신의 전기를 출판할 수 있도록 외국 언론인 1 명과 의사 1 명을 물색해줄 것을 상하이 지하조직에 요청했다. 마오쩌둥은 신중한 조사를 마친 후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춘 스노를 초청했다. 그는 미국인이었으며 영향력 있는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및 ‘뉴욕 해럴드 트리뷴’에 기사를 기고했고, 중국 공산당에 호의적이었다. 스노는 7 월 레바논계 미국인 의사 조지 헤이텀과 함께 공산당 근거지에 도착했다. 헤이텀은 코민테른의 극비문서를 의료기 가방 속에 숨겨 운반했다. 스노는 3 개월 동안 머문 데 비해 헤이텀은 죽을 때까지 공산당과 함께 지내며 마오쩌둥의 주치의 겸 중국 공산당의 대외정보기구 요원으로 일했다.

마오쩌둥은 어느 것 하나 우연에 맡기지 않았고, 스노의 방문에 관해서 상세한 사항을 직접 지시했다. ‘보안, 비밀, 친절, 환대’ 스노가 사전에 제출한 질문서에 대해서 정치국은 답변을 세심하게 조정했다. 마오쩌둥은 스노에게 소중한 정보와 터무니없이 날조된 내용의 혼합물을 제공했으며, 스노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마오쩌둥 및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단도직입적이고 솔직하고 단순하며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오쩌둥은 AB 숙청과 같은 고문 및 살인 사실을 은폐했고, 중국을 횡단했던 행군을 ‘대장정’이라고 이제 교활하게 재조명했으며, 행군 도중의 루딩 교 사건과 같은 영웅적 행동과 전추를 날조했다. 그는 자신이 병을 앓을 때를 제외하고 대장정 6,000 마일의 대부분을 일반 병사들과 함께 걸었다.’고 민도록 만들었다. 마오쩌둥은 또한 모스크바와 자신의 관계를 완전히 숨겼고,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원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

마오쩌둥은 스노가 쓴 내용을 모두 사후에 점검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고쳐쓰는 용의주도한 조치를 추가로 취했다. 1937년 7월 26일, <중국의 붉은 별>이 출간되기 전, 스노는 연안에 머물고 있던 아내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나에게 한 이야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연락 사항을 이제 나에게 보내지 마시오... 사실 너무나 많은 내용을 삭제하고 나니 차일드 해럴드를 읽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오.’ 스노는 이러한 배경을 <중국의 붉은 별>에서 언급하는 것을 피했으며, 대신 마오쩌둥이 ‘나에게 어떤 검열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어판은 스노의 표현을 더욱 미화했으며, 그는 마오쩌둥의 발언이 ‘정직하고 진실’함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중국의 붉은 별〉은 1937-1938 년 겨울에 영어판이 출판되어 서방의 여론을 친마오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중국 공산당은 불편부당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서쪽여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중국어판 출판을 기획했다. 이 책과 〈마오쩌둥 자서전〉에 덧붙여 세 번째 책이 스노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이 책도 중립적으로 들리는 〈마오쩌둥의 인상기〉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중국의 붉은 별〉은 중국의 급진파 청년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많은 청년들이 스노의 책을 읽고 공산당에 가입했다. 그 중에는 최초로 티베트 공산주의자가 된 청년도 있었다. 이는 중국 공산당 부흥의 시작이었다. 미오쩌둥은 이 책의 출판이 ‘요 임금의 치수 업적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요 임금은 홍수를 다스려 중국 문명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 신화 속의 황제였다. 장제스의 언론 담당 책임자인 사오리쯔는 스노를 지원하고 마오쩌둥 및 공산당을 홍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근 1 년 뒤 장제스가 사오리쯔를 해임시켰을 때에는 이미 마오쩌둥과 공산당이 그들의 불온한 이미지를 씻은 뒤였다.⁵

⁵ 장용, 존 헬리데이, 《마오(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까치, 2006, p.256-258

가족에게 냉랭한 마오

마오쩌둥이 개인적으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은 유명하다. 마오쩌둥의 아이들은 1937년 초 모스크바에 도착했으며, 외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갔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사진을 보냈으나 마오쩌둥은 거의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⁶

마오쩌둥의 아내 허쯔전은 근 10년에 걸친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냉담한 태도를 감수하고 살아야 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몇 차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중 하나는 대장정 도중에 한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한 것이다. 그녀는 또 자신이 아기를 ‘암탉이 알을 낳듯이 쉽게 낳는다’고 조롱한 남편의 농담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마오쩌둥이 자기 아이들에게 무관심했고, 4명의 자녀가 죽거나 버림받았을 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계속 임신시킨 것을 원망했다. 자오자오라고 이름 붙인 그들의 다섯번째 아이는 1936년 바오안에서 태어났다. 전갈과 쥐 득실거리는 바오안의 생활여건은 참담했다. 1년 후 허쯔전은 다시 임신했고, 이로 인해서 그녀는 우울증에 걸렸다. 극도로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반복된 임신이

⁶ 장융, 존 헬리데이, 《마오(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까치, 2006, p.256

가정생활의 보상을 받지 못한 그녀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이 모든 고생도 부족하여 남편은 공공연히 외도를 일삼았다.⁷

장제스, 일본, 공산당의 삼국시대

만주사변 이후 일본이 중국에 대한 침략야욕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정부는 항일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중국이 단결하여 항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장제스를 한번도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 장개석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장개석, 일본, 공산당의 삼국시대로 보고, 일본을 통해 장개석을 제거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 소련이 원하는 대로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이 상하이에서 벌어졌고, 소련이 마오쩌둥에게 공산당 홍군이 국민당과 연합하여 싸우도록 지시하자 이를 반대하고 소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1937년 7월 7일 베이징 교회 루거우 교(마르코 폴로 다리)에서 중국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7월 말이 되자 일본군은 중국 북부의 2대 도시인 베이징과 텐진을 점령했다. 장제스는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고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다. 일본군 역시

⁷ 장융, 존 헬리데이, 《마오(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까치, 2006, p.262

전면전을 원치 않았다. 이 시점에서 일본은 중국 북부 너머로 전투를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몇주일 안에 1,000 킬로미터 남쪽에 있는 상하이에서 전면전이 벌어졌다. 상하이는 장제스와 일본 모두 전쟁을 벌일 의사나 계획이 없었던 지역이었다. 일본은 1932 년 강화조약에 따라 상하이 부근에 불과 3,000 명의 해병대 병력만을 배치했다. 8 월 중순까지 일본의 계획은 여전히 다음과 같았다. ‘육군은 중국 북부에만 배치한다.’ ‘육군을 상하이에 파견할 필요가 없다.’

7 월 들어 일본의 신속한 북부 중국 점령으로 스탈린은 매우 직접적인 위협을 느꼈다. 대규모 일본군은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수천 킬로미터 길이의 국경선 어느 곳에서든지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했다. 1 년 전 스탈린은 일본을 주요 위협으로 공개적으로 지목한 바 있었다. 이제 그는 국민당군의 심장부에 오래 전에 심어놓은 공산당 간첩을 활동하게 만들어 상하이에서 전면전쟁의 뇌관을 건드린 것으로 믿어진다. 전면전은 일본군을 불가피하게 중국의 광활한 심장부로 끌어들여 소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⁸

일본과 중국의 전면전 발발로 마오쩌둥은 즉각 몇가지 이익을 얻게 되었다. 마침내 장제스는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때까지 장제스는 홍군이 자치권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⁸ 장융, 존 헬리데이, 《마오(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까치, 2006, p.267-269

거부했었다. 홍군은 중앙정부 군대의 일부로 간주되기는 했으나, 이리하여 마오쩌둥은 자기 군대에 대한 통솔권을 가지게 되었다. 장제스가 중국군의 최고사령관이었으나 그는 홍군에게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없어 ‘요청’ 형식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야만 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합법화 되었다. 이는 8 년동안 계속되면서 대략 2 천만명에 이르는 중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중일전쟁에서 마오쩌둥이 거둔 각종 이득의 시작에 불과했다. 중일전쟁은 장제스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켰고, 마오쩌둥이 130 만 명의 대군을 거느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전쟁 초기에 국민당군과 공산군의 비율은 60 대 1 이었으나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3 대 1 이 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 유발을 막후에서 조종한 후 스탈린은 중국 홍군에게 참전하도록 명령했고, 중국 공산당에게 국민당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장제스가 일본과 휴전할 빌미를 조금이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에 반대했다. 마오쩌둥은 중일전쟁을 모든 중국인들이 단결하여 일본과 맞서 싸우는 전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장제스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여러 해 뒤 마오쩌둥은 중일전쟁을 삼파전으로 간주했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 그는 중국 역사에서 삼국시대로 알려진 시기를 환기시키며 ‘장제스, 일본 우리의 3 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쟁을 일본군이 장제스를 파멸시키는 기회로 보았다. 여러 해 뒤 마오쩌둥은 ‘큰손’을 빌려준 데 대해서 일본에 몇 차례 감사했다. 전쟁이 끝난 후 몇몇 일본인 방문자들이 일본의 중국

침공 사실을 그에게 사과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오히려 일본 군부 지도자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일본군이 중국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산악지대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마오쩌둥은 장제스를 빼놓고 일본군을 몰아내는 전략은 한번도 세운 적이 없었다. 그는 장제스가 패배할 경우 중국 공산당이 일본 점령군을 이길 수 있다는 꿈 역시 꾸지 않았다. 그의 모든 희망은 스탈린에게 달려 있었다. 마오쩌둥은 1936 년 에드거 스노와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의 계산을 분명히 밝혔다. ‘소련은 극동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무시할 수 없다. 소련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다. 소련은 일본이 중국 전체를 정복하고 중국을 전략적 기지로 삼아 소련을 공격하는 사태를 좌시하겠는가? 아니면 소련이 중국인들을 지원할 것인가? 우리는 소련이 후자를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⁹

그러므로 중일전쟁에 대한 마오쩌둥의 기본 계획은 스탈린이 행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중국 홍군의 전력을 보존하고 홍군 점령 지역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상하이 지역은 물론 북부 중국에서 내륙으로 점점 깊이 밀고 들어갔을 때 마오쩌둥은 홍군을 전투에 배치하지 않고, 정부군의 보조적 지원부대로 활동하도록 한다는 데 장제스가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마오쩌둥은 홍군이

⁹ 장융, 존 헬리데이, 《마오(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까치, 2006, p.270-271

침략군과 전투를 벌이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았다. 그는 홍군 지휘관들에게 일본군이 국민당 군대를 패배시킬 때까지 기다린 다음, 일본군이 진격한 뒤 일본군 전선 후방의 영토를 점령하라고 명령했다. 일본군은 그들이 정복한 중국의 방대한 여러 지역을 수비할 수 없었으며, 일본군의 점령지는 마침내 일본 영토 자체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일본군은 철도와 대도시만을 장악할 수 있었고, 주소 도시와 농촌 지역은 무주공산이 되었다. 마오쩌둥은 또한 홍군 병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패배한 국민당군 병사들을 끌어모으라고 명령했다. 그의 계획은 일본군에 편승하여 홍군의 영토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은 군대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기처럼 보냈다. ‘근거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라. 전투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일본군이 산시 성을 휩쓸고 지나갈 때 이렇게 명령했다. ‘산시 성 전역에 우리의 영토를 설정하라.’ 그는 여러 해 뒤 자신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다. ‘일본군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수록 더 좋다.’ 마오쩌둥의 접근 방식은 일본군과의 전투에 열성적이었던 공산군 지휘관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중국 공산당이 일본군과 싸우기를 원했고 자신의 정책 시행을 위해서 1937 년 11 월 자신에게 가장 충성을 바치는 중국인 동지를 소련 비행기에 태워 연안으로 보냈다. 이 사람은 왕밍이었는데, 스탈린은 그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전쟁 (즉, 일본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면 우리는 내전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스탈린의 노선에 동조했다. 왕밍이 귀국한 후 처음으로 12 월에 정치국 회의가 열렸을 때 그는 ‘항일 전투 우선’ 정책의 창도자가 되었다. 홍군은 장제스가 최고사령관직을 맡고 중국 공산당이 그 일부를 이룬 국민당 군대 본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중공 정치국은 결정했다. 마오쩌둥은 이 같은 결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스탈린의 분명한 명령에 직면하여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동료들은 마오쩌둥을 1 인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마오쩌둥의 목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모스크바는 1928 년 마지막으로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였는데, 이 대회에서 정치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정치국이 선정한 사람은 마오쩌둥이 아니라 왕밍이었다.

마오쩌둥은 또한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서기처에 대한 통제도 상실했다. 1927 년 국민당과 갈라선 이후 처음으로 서기처의 회원 9 명 전원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중 5 명이 마오쩌둥을 지지하지 않았다. 다수를 차지한 반대파의 지도자는 왕밍, 신사군의 사령관인 상잉은 오래 전부터 공개적인 마오쩌둥 반대자였다. 장정 기간 동안 마오쩌둥이 집중적으로 타도 대상으로 삼은 장귀타오는 마오쩌둥을 증오했다. 그리고 저우언라이와 보구는 둘 다 왕밍을 지지했다. 저우언라이는 일본군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을 지지했고, 다수파의

의견에 기꺼이 따랐다. 마오쩌둥은 소수파였다. 왕밍은 모스크바의 권위를 등에 업고 모스크바에서 당을 대표하는 자격을 행사했으며, 스탈린을 만났고, 국제 공산주의 지도자들과 친한 사이였다. 러시아어에 능숙했고 크렘린의 행동 방식에 정통했던 그는 무자비한 야심가였다. 소련의 대숙청 기간 동안 그는 다수의 중국 공산당원들을 감옥이나 사형장으로 보냈다. 동안에 키가 작고 뚱뚱한 체구였으나 극도로 자신만만했던 이 서른세 살의 공산당원은 마오쩌둥에게 강력한 위협이 되었다.

1938년 2월 마오쩌둥이 장제스와 합의된 전략에 배치되는 명령을 계속 내리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정치국은 다시 회의를 소집했다. 왕밍은 이러한 목적 외에 또 하나의 긴급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1월에 마오쩌둥의 주도 아래, 장제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차지의 새 공산당 영토는 공식적으로 공산당 근거지라고 선포한 것이다. 또 다시 정치국원의 과반수가 왕밍을 지지하였고 왕밍은 최고사령관 장제스에 홍군이 복종해야하며, 모든 새로운 공산군 근거지는 국민당 정부로부터 사전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모스크바의 노선이었는데, 그리하여 마오쩌둥은 '중일전쟁 우선정책'을 받아들이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심각한 신경과민 상태가 된 마오쩌둥은 모스크바가 자신의 본심을 알지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했다. 1937년 12월 정치국 회의에서 '보안유지'라는 구실하에 참석자들의 자필 기록을 모두 압수했다.

1938 년 10 월말 마오쩌둥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 (저우언라이, 상잉, 보구, 왕밍)은 도시를 떠났다. 반대파를 공격하며,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정책을 강압적으로 제시했다. 즉 홍군 근거지들을 적극 확장하고 필요할 경우 국민당 군대와 전쟁을 벌인다는 정책이었다.¹⁰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이 시작하기 이전부터 마오쩌둥은 장제스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었다. 먼저 장쉐량을 이용하였다. 마오쩌둥은 장쉐량이 장제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기꺼이 도와주고 그와 동맹 맺기를 원했다. 장쉐량이 소련에 의존하면 중국 공산당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마오쩌둥은 전 중국을 통치하는 권좌의 막후 실세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오쩌둥은 장쉐량과 중국 공산당의 반(反)장제스 동맹을 제안하고, 장제스 대신 그가 국민당 정부의 새 최고지도자가 되는 데 지원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광둥성과 광시성이 동맹을 맺어 장제스 정부에 반란을 일으키자, 마오쩌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일한 반란을 일으켜 북서지방을 독립시켜 공산당과 동맹을 맺는 기회로 삼으라고 장쉐량을 설득했다.

장쉐량은 중국 공산당과 동맹을 맺고 ‘일본과 결정적인 투쟁을 벌일’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즉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 장제스는 여전히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대가로 장제스 대신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되도록 소련이 장쉐량

¹⁰ 장융, 존 헬리데이, 《마오(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까치, 2006, p.285

자신을 지원해주기를 원했다. 이 같은 제안은 스탈린에게 대단히 매력적이었다. 그는 중국이 일본에 대항하여 전면전쟁을 벌이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일본은 1931 년 이후 중국의 영토를 잠식하고 있었다. 만주를 합병한 수, 일본은 1935 년 11 월 북부 중국의 일부 지역에 또 하나의 괴뢰정권을 세웠으나 장제스는 일본과의 전면전쟁을 회피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일본이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소련을 공격하지 않을까 조바심을 냈다. 중국을 이용하여 일본군을 중국의 광활한 내륙지방으로 끌어들여 그곳에서 발목이 잡히도록 하여 일본을 소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스탈린의 목표였다. 장쉐량의 제안은 소련에 적절했으나 스탈린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만주의 군벌 출신인 장쉐량에게 중국 전체를 단합시켜 대일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중국이 내전에 빠져들 경우, 이는 일본의 승리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소련에 대한 일본의 위협을 배가시키게 될 것이었다. 소련 측은 자국이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듯이 속이면서 장쉐량을 유도하여 중국 공산당을 돕도록 만들었다. 소련 외교관들은 장쉐량에게 중국 공산당과 비밀리에 직접 접촉하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협상 대표와 장쉐량의 첫번째 회담은 1936 년 1 월에 열렸다.

마오쩌둥은 장쉐량이 장제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기꺼이 도와주고 그와 진정한 동맹을 맺기를 원했다. 장쉐량이 소련에 의존하면 중국 공산당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마오쩌둥은 전 중국을 통치하는 권좌의 막후 실세가 될 수도 있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협상 대표인 리커농에게 장쉐량과 중국 공산당의 반(反)장제스 동맹을 제안하고, 장제스 대신 그가 국민당 정부의 새 최고지도자가 되는 데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 해 6월 광둥성과 광시성이 동맹을 맺어 장제스 정부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마오쩌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일한 반란을 일으켜 북서지방을 독립시켜 공산당과 동맹을 맺는 기회로 삼으라고 장쉐량을 설득했다. 그러나 장쉐량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지배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노골적으로 그 계획에 반대했다. 스탈린은 분단된 중국이 아니라 일본을 전면전으로 끌고 들어갈 통일된 중국을 원했다. 스탈린은 중국을 단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장제스라고 확신했다. 모스크바는 중국 공산당에 이정표적인 명령을 내려 장제스를 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동맹자로 간주하라고 말했다. ‘장제스를 일본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홍군과 장제스 군 사이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 맞서 함께 싸우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항일의 대의명분에 따라야 합니다.’라며 스탈린은 중국 공산당이 적어도 당분간 장제스를 통일된 중국의 지도자로 받들기를 원했다. 모스크바는 장제스와 동맹을 맺기위해서 진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을 중국 공산당에 단호히 지시했으며 마오쩌둥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통일전선’에 관한 협상이 9월에 시작되었다.

모스크바와 마오쩌둥 양측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장쉐량에게 숨긴 채 그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장제스 교체 문제에 대해서 장쉐량이 계속 오판하도록 만들었다. 마오쩌둥의 입장에서, 장쉐량이 모스크바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부추겼다.¹¹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은 장제스를 납치하고 죽일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기까지 하였다. 책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장제스가 납치되자 한 지도자는 마오쩌둥이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장제스가 잡혔으므로 마오쩌둥은 이제 한가지 커다란 목표가 생겼다. 장제스가 죽도록 만드는 것이다. 장제스가 살해되면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고, 따라서 소련이 중국 공산당 및 마오쩌둥 자신에게 권력을 안겨주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죽이기 위해서 공작을 벌이는 동안 스탈린은 장제스를 살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장제스가 잡힌지 3일이 지난 12월 13일 소련의 난징주재 대리대사가 ‘이번 쿠데타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만약 장제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국민의 분노가 공산당을 넘어 소련으로 비화될 것이며,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과 연합하라는 (중국 정부에

¹¹ 장융, 존 헬리데이, 《마오(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까치, 2006, p.238-241

대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탈린은 이번 납치 사건이 자신의 전략적인 각종 이익에 긴박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이해했다.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일본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스탈린은 소련의 ‘노련한 중국 전문가’를 거의 모두 체포하여 고문과 신문을 이미 시작했다. 장제스가 납치된 지 4일 수, 고문을 당한 한 몇 사람의 자백 내용 가운데 마오쩌둥의 이름이 곧 드러났다. 코민테른 서기장 디미트로프는 16자로 마오쩌둥에게 이 사건이 ‘항일 통일전선에 명백한 손상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국 침략을 도울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납치 사건을 비난했다. 이 전문의 요점은 ‘중국 공산당이 평화적 해결에 찬성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장제스 총통의 석방과 권좌 복귀를 보장하라는 명령이었다.

전보가 도착했을 때 마오쩌둥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고.. 발로 땅을 구르며 욕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다음 조치는 그 전보가 자신에게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다. 그는 전보가 도착한 사실을 모두에게 비밀로 했는데, 저우언라이는 장제스를 죽이도록 장쉐량을 설득하기 위해 시안으로 가는 중이었다. 마오쩌둥은 나중에 코민테른으로부터 받은 12월 16일자 전보가 ‘수신불량으로 해독이 불가능’했고, 중국 공산당은 18일에 재전송해줄 것을 모스크바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날조된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 작전의 핵심에서 일한 무선 통신사들은, 판독이 어려운 전부의 경우 즉각 모스크바에 재전송을

요청하는 것이 표준적인 업무절차이며 적어도 위기사태 시에는 절대로 이를 동안 기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19 일에 마오쩌둥은 공산당 정치국에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코민테른의 지시는 도착하지 않았다.’ 이는 모스크바를 상대로 한 위험부담이 큰 전술이었다. 마오쩌둥은 자신이 장제스의 납치 계획을 부추겼다는 사실만을 숨긴 것이 아니라, 스탈린이 직접 내린 명령을 숨기고 거역한 것이다. 그러나 마오쩌둥으로서는 장제스를 제거함으로써 기대되는 전망이 스탈린을 화나게 하는 위험부담보다 더 컸다. 한편, 장쉐량은 모스크바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장제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장제스를 석방하고 함께 시안을 떠나 자신의 신병을 장제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20 일 모스크바는 중국 공산당에 다시 전보를 보냈고, 마오쩌둥은 ‘평화적 해결책’을 지시한 이 두번째 전보도 숨겼다. 이제 마오쩌둥은 ‘장제스의 자유 회복’을 도와주라는 지시와 함께 이 전보를 저우언라이에게 보냈다. 이리하여 마오쩌둥은 자신의 목표들을 스탈린의 목표들과 일치하도록 방향을 전환했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자 박멸 정책’의 중단을 약속하도록, 또한 장제스가 저우언라이와 회담을 할 것을 요구했다. 장제스의 납치 직전, 장제스 정권의 모스크바 주재대사 장징궈의 귀국요청이 있었는데, 모스크바는 그제서야 이를 받아들일 용의를 보였다. 저우언라이가 이와 같은 스탈린의 직접적인 약속을 듣고가자, 장제스는 공산당의 요구사항에 동의하고 ‘직접 협상을 위해 난징에 오도록’

저우언라이를 초청했다. 이 순간부터 중국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산적집단이 아니라 합법적인 정당으로 대접받게 되었다.¹²

마오쩌둥 그는 정말 괴물이었는가?

그레고어 벤튼(Gregor Benton)과 린춘(Lin Chun)의 편저, *Was Mao Really a Monster?* 는 장융(Chang Jung)과 존 헬리데이(Jon Halliday)의 책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장융(Chang Jung)은 중국 자료들을, 그의 남편이자 공동저자인 존 헬리데이(Jon Halliday)는 러시아 자료를 담당하였으며, 38 개국, 363 명의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된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라는 것은 과장된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발견이라기 보다는 이전에는 없던 마오에 대한 평가 혹은 비난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데올로기적 헌신은 전혀 없이 오직 권력욕으로만 점철된 삶이었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좋은 가족은 아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가족을 너무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면, 당시 그의 군사들로부터 사적인 목적을 위해 당을 희생시킨다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장융과 존 헬리데이의 마오에 대한 적개심은 단지 그들의 해석뿐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할 역사적

¹² 장융, 존 헬리데이, 《마오(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까치, 2006, p.247

서술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장제스의 아들 장징궈가 1925 년 소련으로 간 것은 장제스의 허락에 의한 것이었지, 납치당한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장용의 초기 작품 『대륙의 딸』 과도 모순이 생기는 등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게다가 많은 사실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정황적인 증거로만 판단되고 추측되었다. 익명의 인터뷰 당사자도 너무 많고,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을 참고하였다는 점 역시 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마오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인 학술서가 아니라 격정적인 비판만 가득한 글 같다고 평가하고, 반대의 근거들을 제시하였다.¹³ 『마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은 매우 그럴싸하고 흥미진진했지만, 다소 한쪽으로 치우쳐진 마오의 일면만 보게 되는 것 같아, 마오쩌둥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 본 그 당시에드가 스노(Edgar Snow)와 존 서비스(John Service)의 글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항일을 위한 민족주의

마오쩌둥은 1937 년 8 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자’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일부 국민당원들은 항전이 승리한 후에 가서 정치개혁을 하자고 한다.

¹³ Gregor Benton and Lin Chun, eds., *Was Mao Really a Monster? The academic response to Chang and Halliday's Mao: The Unknown Story*, Routledge, 2010

그들은 정부의 단독항전만으로 일본침략자를 타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정부의 단독항전만으로는 어떤 개별적인 승리나 얻을 수 있을 뿐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타승할 수는 없다. 오직 전면적인 민족적 항전에 의하여서만 일본침략자를 철저히 타승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민족적 항전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국민당 정책의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전환이 있어야 하며 전국의 상하가 철저한 항일의 강령을 공동으로 실행하여야 한다'.¹⁴ 77 사변이 일어난 직후 마오쩌둥은 일치항일의 공식적인 주장을 내놓으며 공산당을 단결시키려 한 것이다.

에드가 스노(Edgar Snow) 역시 1935 년 12 월 9 일 학생시위가 “내전을 중지하라! 항일을 위해 공산당과 협력하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것을 보여주면서 당시 항일을 위한 단결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해주었다. 이것은 공산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¹⁵ 또한 상하이의 선교사 학교에서 교육 받은 왕목사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나오는 데, 그는 청방의 회원이었다. 교회 일과 관직을 떨치고 나온 왕 목사는 한동안 공산당과 협력해 왔다. 그는 군벌이나 관리들과 접촉하는 공산당의 일종의 밀사였는데, 그 때

¹⁴ 마오쩌둥, 《모택동 선집 2》, 범우사, 2002[1991], p.29

¹⁵ Edgar Snow, *Red Star over China*, 2013[1939], 홍수원 외 역 《중국의 붉은 별》 (서울: 두레), p.34

공산당은 바로 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항일민족전선 제안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¹⁶

또한 그는 글에서 1936 년 마오쩌둥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당시, ‘나는 마오가 감정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라는 짙은 인상을 받았다.’¹⁷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하였다. ‘그는 개인의 중요성을 매우 하찮게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내가 만난 다른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단체, 군대, 결의안, 전투, 전술, 방책’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 하고 개인적인 체험은 거의 말하려 하지 않았다. 개개인의 자세한 역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이 없고 ‘집단’적인 측면에서만 중요성을 가진 듯 했다.’¹⁸

마오쩌둥의 회고담은 ‘개인이력’의 범주를 벗어나 웬지 선뜻 감지되지 않은 채 하나의 거대한 운동의 진행과정 속으로 승화되기 시작했다. 이 운동 속에서 그는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의 개인적인 모습을 뚜렷하게 찾을 수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이었고 마오쩌둥이

¹⁶ Edgar Snow, *Red Star over China*, 2013[1939], 홍수원 외 역 《중국의 붉은 별》 (서울: 두레), p.41

¹⁷ Edgar Snow, *Red Star over China*, 2013[1939], 홍수원 외 역 《중국의 붉은 별》 (서울: 두레), p.111

¹⁸ Edgar Snow, *Red Star over China*, 2013[1939], 홍수원 외 역 《중국의 붉은 별》 (서울: 두레), p.159

아니라 홍군이었으며, 홀로만의 삶의 체험에 비쳐진 주관적인 인상이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운명의 변전을 역사 자료로서 관심깊게 지켜본 방관자 같은 객관적 기록이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에는 내가 그 자신에 관한 것을 캐물어야 할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 당시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당시 ‘그’의 직위는 무엇이었나?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그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나? 그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되는 다음 이야기 가운데 그 자신에 관한 언급이 섞이게 된 것은, 대체로 그러한 내 질문을 통해 역지로 이끌어 낸 것이었다.¹⁹

1933 년 10 월부터 1934 년 10 월까지는 제 5 차 초공전이었다. 우리는 두가지 실책과 장제스의 새로운 전술, 전략이 국민당군의 압도적인 수적, 기술적 우세와 연결되어 홍군은 1934 년 급속하게 악화되는 장시에서의 존립 여건을 타개할 방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 정치상황이 주요 활동 무대를 서북으로 옮겨야 한다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어요. 일본이 만주 및 상하이를 침략하자 소비에트 정부는 이미 1932 년 2 월에 공식적으로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했습니다. 국민당군이 소비에트 중국을 봉쇄하고 포위하는 바람에 이 선전포고는 물론 실행할 수 없었지만, 이 포고에 뒤이어 소비에트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중국 내의 모든

¹⁹ Edgar Snow, *Red Star over China*, 2013[1939], 홍수원 외 역 《중국의 붉은 별》 (서울: 두레), p.219

무장세력이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1933 년 초 소비에트 정부는 내전 중지, 소비에트 지역 및 홍군에 대한 공격 중지, 인민대중에 대한 시민적 자유권과 여러가지 민주주의적 권리 보장, 항일전쟁을 위한 인민의 부장화 등을 수락하는 조건이라면 어떠한 백군과도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²⁰

반일감정이 점차 매서워지자, 국민당정부는 일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하는 압박감을 느꼈다. 또한, 1937 년 12 월 시안사변에 이어 장제스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미래의 공격에 저항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시안에서 석방을 받아낸 것이었다. 따라서 1937 년 2 월 장제스는 그의 오랜 적인 공산당과 화해를 맺기 시작할 수 있었다.²¹

만주사변 직후 중국에서는 이미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일화배척운동과 경제절교운동 등 배일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미 만보산사건 이후 시작된 배일운동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918 만주사변 이후 일화배척운동(日貨排斥運動)은 관민(官民)의 일체적인 행동을 통해 철저하게 수행되었다. 실제로 1932 년 8 월 1 일에는 광둥(廣東)에서

²⁰ Edgar Snow, *Red Star over China*, 2013[1939], 홍수원 외 역 《중국의 붉은 별》 (서울: 두레), p.231

²¹ Lloyd Eastman, et al., *Nationalist China during the Sino-Japanese war 1937-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120

일화검찰원(日貨檢査員)이 일화(日貨)를 밀수입한 혐의로 총살에 처해졌으며, 18 일 남경(南京)에서 항일회 (抗日會)는 밀수혐의로 체포된 사람에게 사형(死刑)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제품을 공개적으로 유통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²² 이정희(2017)에 따르면, 중일전쟁시기 조선화교들 역시 활발한 항일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민항일전쟁 기념관에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하여 일본에 대항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일전쟁기 한국과 중국이 연합하여 항일한 모습

²² 김지환, '중일전쟁기 중국의 전시외교와 국제관계',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1), 2019, p.150

이러한 항일정신은 당시 분위기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었다. 중국 공산당이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 침략에 따른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의 자각’과 ‘봉건왕조와 군벌정치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반봉건적 민주주의의 실현 욕구’ 등, 그 시작 자체가 민족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²³

장제스에 대한 자신감

중일전쟁 당시 미 외교관이었던 존 서비스(John Service)의 글에서 그의 마오에 대한 주된 평가는 ‘마오는 자신감에 가득 차있었다’는 것이다. 공산당은 중국정부를 장악하고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의 라이벌 국민당에 대해 비난은 아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표현하였다. “장개석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폭정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과 싸우기 위해 그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오직 90 명의 단독 정당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히틀러가 오히려 더 민주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적어도 히틀러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으니까”²⁴ 마오쩌둥은 장개석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삼가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1937 년 9 월에는 ‘국공합작 성립

²³ 이건일, 《모택동 vs. 장개석: 중국국공혁명사》, 삼화, 2014, p.75

²⁴ Lynne Joiner, *Honorable Survivor: Mao's China, McCarthy's America, and the Persecution of John S. Service* (2009) p.71

후의 절박한 임무’라는 그의 글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통일전선으로는 완수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양당의 통일전선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오늘의 항일통일전선에는 아직도 국민당의 전제정책을 대체할 만한, 양당이 공인하고 공식적으로 공포한 정치강령이 없다.’며 ‘정부와 군대의 단독항전만이 아닌, 민중을 불러일으켜 통일전선을 충실히 이행시켜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²⁵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마오쩌둥의 영향은 중일전쟁 후반기 옌안지역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존 서비스(John Service)는 1944 년 7 월 22 일 옌안지역에 도착하고 느낀 당시의 분위기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마침내 옌안지역에 도착했다. 무엇보다 우리를 놀랍게 했던 것은 옌안지역의 분위기였다. 충칭지역은 이제 전쟁이 끝나기만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하이와 난징지역에 있는 집과 가족들에게 곧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옌안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가난하고, 야외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은 열정과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그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공산당들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상황은 매우 좋았다. 모든

²⁵ 마오쩌둥, 《모택동 선집 2》, 범우사, 2002[1991], p.41-43

것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좋고, 우리는 이길 것이고, 이기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지도 못했다. 그들은 ‘국민당은 우리를 휩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 이 지역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졌다. 그들의 태도는 매우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는데,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환대하고, 우리를 경계하거나 밀어내지 않는 그러한 느낌이었다. 그들의 연락담당자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머물러 시간을 보냈다. 허물없이 편안했고, 그 곳의 사람들은 서로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았다.²⁶

호탕하고 우호적인 마오

마오쩌둥은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잔인하리만큼 냉정하고 차가웠던 반면, 그의 동료들 심지어는 서양에서 찾아오는 외부인사들에게는 매우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 서비스(John Service)는 당시 공산당 지도자들과 마오쩌둥을 굉장히 비격식적인 자리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새로운 공산당 지도자들을 만나서 거의 하루에서 이틀간 우리에게 보고해주었다. 모든 고위 군 관료들, 주더(Chu The), 예젠잉(Yeh Chien-Ying), 펑더화이(P'eng Teh-Huai), 린피아오(Lin Piao)와 여러

²⁶ John Service, Interview with John Service, The Bancroft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77, p.319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옌안지역에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7 번째 당대회에 대해 말했고,
분명히 시의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 여러
외부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1-2 달 정도 걸려서
그곳으로 왔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옌안에 와있었다. 나는 그들과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매우 두꺼운 메모를 남겼다. 마오쩌둥은
초기 만남에서 한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당신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어 말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저
또한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고 조금 더 알아가고,
당신이 우리에게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난 뒤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우리의 대화가 좀 더 유용했을 것 같습니다.” 한달 뒤, 나는
“다음날 2 시반 경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아마 두시였었다. 나는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날의 대화는
오후 2 시부터 밤 10 시까지 이어졌다. 나는 모든 것을 메모했으나,
내가 일본에서 돌아왔을 50 년 그녀(Caroline)는, 아마도 그 메모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항상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모두
버렸다.²⁷ 마오쩌둥이 저녁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우리는 거의 아무 때에나 만나서 어딘가 갈 수 있었다. 그들은 전화가
있었는데, 전화로 본사에 연락해서 “제가 잠깐 가도 될까요?”

²⁷ John Service, Interview with John Service, The Bancroft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77, p.321

“물론입니다.”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었다. 만약 그렇게 만나게 되면, 점심을 같이 먹거나 하는 그런 식이었다. 마음이 잘 통하는 듯 하였고, 친절하였으며, 솔직한 그런 분위기였다. 물론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웃음)’²⁸

1942 년 있었던 공식적인 환영만찬에서 미 외교관 존 서비스(John Service)는 마오쩌둥의 오른쪽에, 콜로넬바렛(Colonel Barrett)은 마오의 왼쪽 (주더의 옆에) 앉았다. 마오쩌둥은 진심으로 미국과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존 서비스(John Service)는 그것이 진심이었음을 회상하면서, 당시에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실수라고 말했을 정도였다.²⁹

나가며

중국인민항일전쟁 기념관 중반부쯤 들어섰을 때, 에드가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Red Star Over China)〉 초판본 등이 당시 외신기자들의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또 전시된 사진 중에 에드가 스노를 찾느라 정신을

²⁸ John Service, Interview with John Service, The Bancroft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77, p.320

²⁹ Lynne Joiner, *Honorable Survivor: Mao's China, McCarthy's America, and the Persecution of John S. Service* (2009) p.72

빠앗겨 책 사진을 찍지 못한 것이 아쉬움에 남는다. 그러나 이 사소한 책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지 못해 아쉬움이 남을 만큼 그 순간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 순간이 마치 내게 ‘그래, 중국을 알아가는 옳은 길로 잘 들어섰어!’라고 격려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마오쩌둥은 개인적인 권력에 눈이 먼 전략의 귀재였는가, 아니면 중국과 인민의 발전을 꿈꿨던 민족주의자였는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데, 공산당과 마오 개인이 위협당하던 중일전쟁시기에 마오쩌둥의 전략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중국의 본 모습을 엿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려는 명백한 상황이었고, 소련은 자국에 위협이 될 이 같은 상황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을 마오쩌둥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였다. 그는 개인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련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일본을 이용하여 자신의 적을 견제하는, 가족은 거의 버리다시피 한 지독한 사람이었다. 아니 그는 그저 자신의 사상에 자신감이 넘쳤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호탕한 민족주의자였다. 그가 택한 ‘인민전쟁’과 ‘지구전’이라는 군사전략은 항일전쟁을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주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전략은 공산당의 홍군 점령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소극적인 항일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전히 중국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인물 마오쩌둥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복수 정답을 인정해줘야 하는

문제일는지 모른다. 역사 속에서 누군가 ‘사실은 이랬다!’면서 그들의 진심을 속 시원하게 밝혀놓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 진심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답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답사를 준비하고 직접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걸음 나아간 것은 우리가 중국을 알아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 국가 지도자 개인의 진심읽기가 위인전을 읽거나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의가 있기를 바란다. 겨우 짧은 보고서를 쓰기 위한 이러한 시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깊은 연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또 다른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 인가. 실제 벌어진 사건이나 정책을 넘어서 한 국가를 이해하는 데 지도자 개인의 진심읽기가 과연 중요한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의 진심읽기는 어떠한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국가를 얼마나 더 이해할 수 있는가는 본 주제와 관해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 나아가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 가토 요코. 2007.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어문학사.
- 구보 도루. 2013. 《중국근현대사 4 : 사회주의를 향한 도전》, 삼천리.
- 기세찬. 2013. 《중일전쟁과 중국의 대일군사전략》, 경인문화사.
- 김지환. 2019. ‘중일전쟁기 중국의 전시외교와 국제관계’,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
- 권성욱. 2015. 《중일전쟁: 용, 사무라이를 꺾다》, 미지북스.
- 마오쩌둥. 2002[1991]. 《모택동 선집 1-4》, 범우사.
- 장융, 존 핼리데이. 2006. 《마오(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까치.
- 박창희. 2013. 《군사전략론》, 플래닛미디어.
- _____. 2011. 《현대 중국 전략의 기원 : 중국 혁명전쟁부터 한국전쟁 개입까지》, 플래닛미디어.
- 요시다 유타카. 2012. 《아시아 태평양전쟁》, 어문학사.
- 이건일. 2014. 《모택동 vs. 장개석: 중국국공혁명사》, 삼화.
- 이시카와 요시히로. 2013. 《중국근현대사 3 : 혁명과 내셔널리즘》, 삼천리 2013
- 이정희. 2017. ‘중일전쟁 시기 조선화교의 항일활동’, 동양사학연구 139 (6).
- Benton, Gregor, and Lin Chun, eds. 2010. *Was Mao Really a Monster? The academic response to Chang and Halliday's Mao: The Unknown Story*, Routledge.
- Eastman, Lloyd, et al. 1991. *Nationalist China during the Sino-Japanese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gal, Gerald and William Tow. 1984. *Chinese Defense Policy*, The Macmillan Press.

Service, John. 1977. Interview with John Service, The Bancroft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now, Edgar. 2013[1939]. *Red Star over China*, 2013[1939], 홍수원 외 역 《중국의 붉은 별》 (서울: 두레).

何应钦. 1990. 《抗战时期军事报告》, 上海书店.

军事委员会军令部第一厅第四处. 1939. 《抗战参考丛书》

Yuanmingyuan and Its “Perfect Brightness” as an Embodiment of a Clash of Empires

원명원

정수연

연세대학교

Introduction

On a hot summer day in Beijing, I finally got to see Yuanmingyuan on a field trip that initiated my interests on the site. Never having visited China or Beijing before, I was intrigued by everything that I saw. However, I was most interested by the seemingly displaced Yuanmingyuan, the intensity of the sun, and the dark and foggy air. I was compelled by how the Yuanmingyuan stood its ground as an unrenovated site of historical and nationalistic significance despite fundamental changes in the politics, society, and environment in China. It proved to be much more complex than I had understood it to be; the maze inside the Yuanmingyuan, and its entertainment, yet perplexment inducing components almost symbolized the magnitude and marvel of the Yuanmingyuan. While I still lack complete comprehension of Yuanmingyuan, I could not agree more with the beauty of Yuanmingyuan stated by Victor Hugo when he traveled to observe the Yuanmingyuan.



“If people did not see it, they imagined it. It was a kind of tremendous unknown masterpiece, glimpsed from the distance in a kind of twilight, like a silhouette of the civilization of Asia on the horizon of the civilization of Europe.”-Victor Hugo

“The French empire has pocketed half of this victory, and today with a kind of proprietorial naivety, it displays the splendid bric-a-brac of the *Yuanmingyuan*. I hope that a day will come when France, delivered and cleansed, will return this booty to despoiled China.”-Victor Hugo

Writing to his friend Captain Butler, Victor Hugo wrote emotionally and scathingly of the destruction of the Yuanmingyuan, which he considered to be a “wonder of the world,” comparing it to the Pantheon in Greece, the pyramids in Egypt, the colosseum in Rome, and Notre-Dame in Paris. He said it was a work of the people. And, he compared Elgin’s destruction of the Yuanmingyuan, to the theft of marbles from the Parthenon. Then, in a voice heard echoed a century and half later, he opined:

“Both the beauty and tragedy of the Yuanmingyuan and its destruction is clearly

indicated in multiple accounts of Western scholarship. In the debate on whether or not the Yuanmingyuan should be rebuilt and renovated, however, the very memories of its beauty and destruction have profoundly affected the Chinese in what they call “the century of shame,” a period that began the early 19th century with the first Opium War and ended in 1949 with victory on the mainlan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³⁰

It would be a reduction to suggest that the Yuanmingyuan is simply a site of great marvel. After having reading, studying, and visiting the site in Beijing, it is a site that presents and represents more. The construction, destruction, and debates surround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Yuanmingyuan engender notions of how empires clash in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Yuanmingyuan is embedded. Lydia Liu’s notion that “civilizations do not clash, but empires” resonates when thinking of the Old Summer Palace having been destroyed, especially because it is a space that was contested with Chinese and Western representations. It exemplifies the consequences of a struggle between two great empires. Thus, this paper argues that the devastated state of the Yuanmingyuan is a physical depiction of a “clash of empires”, and can be observed through the historical processes in which the garden was built, destroyed, and unrenovated.



³⁰ Lillian M. Li,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Destruction, Looting, and Memory (1860-Present),” Accessed April 10, 2019. https://visualizingcultures.mit.edu/garden_perfect_brightness_03/ymy3_essay02.html.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

The history of Yuanmingyuan begins with Kangxi, who was the emperor of China from 1662 to 1722. As the Son of Heaven and the ruler of the Celestial Empire, Kangxi secured his power in the final decades of the seventeenth century by refurbishing many desolated gardens and parklands.³¹ In order to create a private retreat near the Forbidden City but away from its formality, Kangxi built a villa with gardens to the northwest of Beijing, which was named the Garden of Joyful Spring.³²

In 1709 Kangxi began the construction of another estate for his fourth son, Prince Yinzhen, the future Yongzheng emperor. Just a half mile to the north, these gardens were named the Yuanmingyuan—literally, the round (yuan 園) and bright (ming 明) garden (yuan 園)—or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 When he became emperor, Yongzheng expanded this complex and made it his main residence, while leaving the Garden of Joyful Spring for his mother’s residence. He was sensitive to potential criticism of extravagance and considered himself to be frugal in his building projects.

Having been born and raised there, Yongzheng’s son the Qianlong emperor was far more dedicated to the expansion of Yuanmingyuan’s pavilions, buildings, and vistas. In 1749, a new garden named the Garden of Eternal Spring (Changchunyuan 長春園) was added to the east, built according to designs made under the emperor’s close supervision. Because he intended this to be his residence after retiring, the structures, waterways, and views were intended for pleasure more than for formal responsibilities.

In 1774, Qianlong added a third garden to the entire complex, the Garden of Elegant Spring (Qichunyuan 綺春園). His son, the Jiaqing emperor (r. 1796 to 1820) added a great deal to this garden, including pavilions, bridges,

³¹ v

³² Ibid.

lakes, and islets. When Jiaqing died in 1820, his son the Daoguang emperor (r. 1821 to 1850) maintained the tradition of garden-building. His mother and other women were moved from the Joyful Spring Garden that Kangxi had built before the Yuanmingyuan to the Elegant Spring Garden. Thereafter the former fell into disuse, while the three other gardens together became known as the Yuanmingyuan.

Although only an occasional retreat for the Kangxi emperor, the Yuanmingyuan served as the principal residence of the Yongzheng emperor. From the third year of his reign, he resided and held court there from the first lunar month until the ninth (roughly February to October). He went to the Forbidden City only when necessary for ceremonial duties, and during the winter months. Unlike his father, Yongzheng did not follow the practice of going to Chengde in the summer or autumn.

Despite the fact that he contributed the most to the expansion of the Yuanmingyuan and loved to be there, the Qianlong emperor also liked to tour other locations and travel to Chengde in the fall. His stays at the Yuanmingyuan ranged from a mere 10 days in a year to as many as 251, averaging out to 127 days annually. He stayed at the Forbidden City about an equal number of days each year. In general, he preferred the Yuanmingyuan from the first to the ninth lunar months, and the Forbidden City in the winter months. In the fall he also went to Chengde to hunt.

The next three emperors spent relatively more time at the Yuanmingyuan. Jiaqing usually spent more days there than at the Forbidden City. The Daoguang emperor, beset with many problems of state, spent most of his time there, averaging only three months a year at the Forbidden City. He did not return to the Forbidden City until the 11th lunar month of the year. The last emperor to live there, the hapless Xianfeng (r. 1851 to 1861), spent virtually all his later years at Yuanmingyuan until it was destroyed in 1860. Paintings of activities within the Yuanmingyuan convey a sense of the intensely private and personal nature of this imperial space. Although it grew in size and complexity, its function was to provide elegant and intimate pleasure to the emperor.

As in the Forbidden City, the emperor was in effect the only adult male resident in the Yuanmingyuan. Adult princes, noblemen, and high-ranking

officials visited only on particular occasions and never lived there. In addition to the emperor himself, only the imperial wives, ladies, and servant girls; imperial children; and eunuchs resided at the Yuanmingyuan. The Jesuit Jean Attiret wrote:

There is but one Man here; and that is the emperor. All pleasures are made for him alone. This charming Place is scarce ever seen by any body but himself, his Women, and his Eunuchs. The Princes, and the other chief Men of the Country, are rarely admitted any farther than the Audience Chambers.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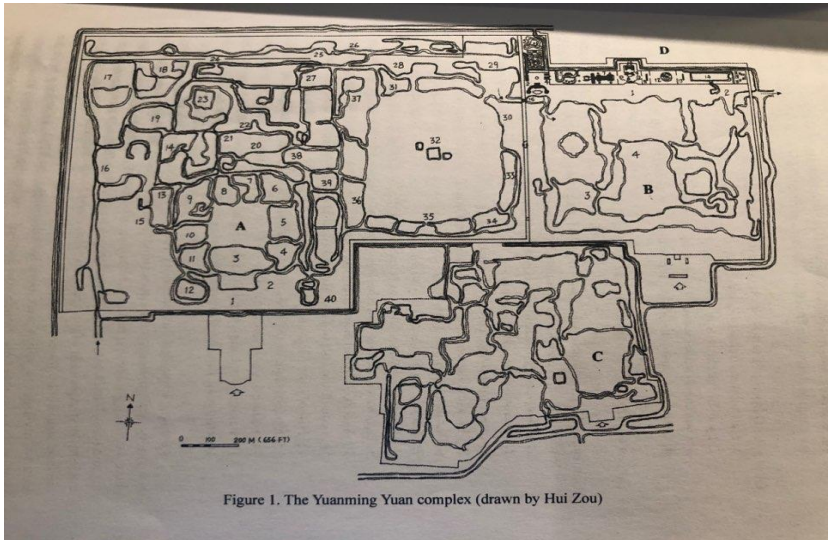
The eunuchs at the Yuanmingyuan performed important roles in the life in the gardens, as well as escorting the emperor during his travels and serving as bodyguards. Their numbers increased and reached over 500 by the end of the Qianlong reign. At the Yuanmingyuan eunuchs, like their master and the court women, enjoyed a relative informality—even familiarity—compared with the formality of the Forbidden City. Although the Qing emperors mostly succeeded in keeping eunuchs out of politics, some eunuchs did acquire wealth and considerable influence at the court and the Yuanmingyuan.³⁴

In addition to these privileged members of the court, there were a handful of Jesuit missionaries who had special access to the emperors. Jesuit and other Catholic missionaries had first gone to China in the 16th century, and by the early-17th century some were welcome at the late Ming court and later at the Qing court. The emperor Kangxi greatly valued their knowledge of astronomy, mathematics, geography, and other scientific matters. Although there was an official ban on proselytizing imposed in the 1720s, some Jesuits were still retained at the court for their knowledge of the outside world. The Qianlong emperor particularly valued their skill in painting. He had them paint

³³ Lillian M. Li,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Destruction, Looting, and Memory (1860-Present),” Accessed April 10, 2019. https://visualizingcultures.mit.edu/garden_perfect_brightness_03/my3_essay02.html.

³⁴ Lillian M. Li,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Destruction, Looting, and Memory (1860-Present),” Accessed April 10, 2019. https://visualizingcultures.mit.edu/garden_perfect_brightness_03/my3_essay02.html.

numerous portraits and large-scale paintings commemorating famous battles, hunting and archery at Chengde, and other activities. At the Yuanmingyuan they were asked to paint the interiors of buildings, to help design the European-style buildings later introduced to one small section of the gardens, and to keep painting portraits and domestic scenes. Attiret, the French Jesuit, wrote that among Europeans only clock-makers and painters were privileged to see the Yuanmingyuan at all.



The Treasurable Ruins

After unsuccessful negotiations in October 1856, Harry S. Parkes, the British counselor in Guangzhou, provoked a confrontation with Ye Mingchen, the governor-general of Guangdong. As a result of these negotiations,

Governor-General Ye was captured by the British and died on the way to Egypt.³⁵ China had a few adversaries, and its trouble was not just with Britain. Napoleon III of France was furious about the execution of the priest Abbé Auguste Chapdelaine in Guangxi for engaging in illicit activities. Consequently, France and Britain joined hands to seize Guangzhou on December 28, 1857, with the moral support of both Russia and the United States.³⁶

The fall of the Yuanmingyuan to foreign invaders takes place within the context of the Sino-Western confrontations in the nineteenth century. Although the post-Opium War (1840-1842) treaty system had secured British commercial interests that neither Macartney nor Amherst had been able to obtain, Britain sought to expand its privileges on the China coast. On the other hand, Xianfeng, a new Emperor, was ashamed of losing to the British national interest, and struggled to recover the Qing's honor and was certainly not willing to yield more rights. Subsequently, the British demanded for treaty revision to acquire further concessions from China.³⁷ However, resistance from both China and England led to the outbreak of the second Opium War, and the burning of the Yuanmingyuan.

After disastrous tensions from the attempts to ratify the second treaty between China and Britain, the British decided to use force. The allied Britain and France urged China to concede through force, and Xianfeng faced a dilemma. He believed that China had to show some strength in order to obtain an acceptable peace; yet on the other, he knew by this time that the military option was too risky to pursue. His advisors were not very helpful either, as some of them asked him to command the imperial army in person to show his determination to resist, while others dissuaded him from a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invaders. The confused emperor, when verbally speaking of war, sent

³⁵ Young-Tsu Wong, *The Imperial Garden Yuanming Yuan: A Paradise Lost*, (China Academic Library: Springer, 2016), 147.

7. Ibid.

³⁷. Young-Tsu Wong, *The Imperial Garden Yuanming Yuan: A Paradise Lost*, (China Academic Library: Springer, 2016), 171.

Prince Yi and the War Minister Muyin to reopen peace talks to “prevent the enemies from further advance.”³⁸ However, Elgin refused, and raised the price for peace. The British conditions now included the advance of the allied troops into China to set up an army garrison. The continuous frustrations between Elgin and Xianfeng persisted, until Elgin charged forward into China with French forces. Eventually, Xianfeng fled with a large entourage, including family members, Manchu noblemen, officials, and eunuchs. They left the Yuanmingyuan through the East Gate of the Eternal Spring Garden in haste.³⁹

The Physical Clash

With Xianfeng having left Beijing, the French troops arrived in Yuanmingyuan. Although there were Chinese guards, who tried desperately to keep the foreigners outside of the gate, the main bulk of the garden’s security force was not able to stop the intrusion of the modern army, and was compelled to retreat without further resistance.

The British troops arrived at the Yuanmingyuan late because they had spent the night near a lamasery. The British leader Elgin in the company of General Grant met with Montauban in the Yuanming Yuan early in the morning of October 7th. On his way, while riding a horse, Grant “perceived the Palace beautifully situated amidst gardens and woods and a range of large suburbs in front.” He seems to have gone through the district of Haidian to see “a fine old stately gateway and the park walls” and then, proceeding up an avenue, “a range of handsome dwellings roofed over with yellow tiles.” He soon found that “in different parts of the grounds were forty separate small palaces in

³⁸ Ibid., 150

³⁹ Ibid., 153.

beautiful situations” and that “the park was carefully kept—the footpaths and roads clean and in excellent order, and there were various pretty pieces of ornamental water”. His interpreter Robert Swinhoe likewise admired the beautiful scene along the way. He strolled to the Main Audience Hall, and a pebbled path led him “through groves of magnificent trees, round lakes, into picturesque summer-houses, over fantastic bridges.” He further observed:

Here a solitary building would rise fairy-like from the center of a lake, reflecting its image on the limpid blue liquid in which it seemed to float, and then a sloping path would carry you into the heart of a mysterious cavern artificially formed of rockery, and leading out on to a grotto in the bosom of another lake. The variety of the picturesque was endless, and charming in the extreme; indeed, all that is most lovely in Chinese scenery, where art contrives to cheat the rude attempts of nature into the bewitching, seemed all associated in these delightful grounds. The resources of the designer appear to have been unending, and no money spared to bring his work to perfection. All the tasteful landscapes so often viewed in the better class of Chinese paintings, and which we had hitherto looked upon as wrought out of the imagination of the artist, were here brought forth in life.⁴⁰

Lord Elgin, too, was impressed by the beauty of the garden. On Sunday, October 7, 1860, in the midst of these surroundings, he praised the “Summer Palace” as “really a fine thing, like an English park—numberless buildings with handsome rooms—and filled with Chinese curios, and handsome clocks, bronzes, etc.” His private secretary Henry Loch admired especially the architectural beauty of the garden. The buildings to him “were nearly all isolated from each other, being connected by gardens, courts, and terraces.” He considered the “Hall of Audience,” perhaps the Zhengda Guangming Dian, “the most striking.” In this compound, he saw large buildings “connected by courtyards, passing through which we entered spacious reception rooms that opened into gardens of considerable extent, which lead down to a marble

⁴⁰ Young-Tsu Wong, *The Imperial Garden Yuanming Yuan: A Paradise Lost*, (China Academic Library: Springer, 2016), 171.

terrace stretching along the shores of a lake some three miles in length.” He took a fancy for white marble balustrades, blue inlaid enamel vases with imitation flowers, and the larger-than-life lion and cow bronzes.⁴¹

What followed such admiration was the ransacking and looting of the Yuanmingyuan, which resulted in the seizure of the “40 Scenes of Yuanmingyuan” by the French. It only took a few days of plundering to disgrace the Yuanmingyuan. “Everything of value that could be carried off, consisting of gold, silver, clocks, watches, enamels, porcelain, jade stone, silks and embroidery, with numerous other articles of vertu,” as the Major General Allgood testified, “were removed by the Allies”.⁴² While rushing about for the valuables, the looters also destroyed those they could not take away. Excitement reached a peak on October 9, when news spread that a huge quantity of gold and silver was discovered in the garden. In addition to gold and silver, the soldiers also found a room “full of the richest silks and furs.”⁴³

In the aftermath of the Anglo-French loot, the local residents, both peasants and bannermen, managed to sneak into the garden to steal whatever leftovers they could find. To be sure, the follow-up plundering made the rampage worse; but blaming the tragedy mainly on the local people, as some did, borders on avoiding the important while dwelling on the trivial. The loss of the treasure in the imperial gardens was in the main because of the vengeance of the victorious army. It was the foreign invaders who turned the splendid Yuanmingyuan and its subsidiary gardens into a shambles. In fact, they themselves admitted that once they found the enormous wealth inside the garden, they became too greedy to respect fundamental military discipline.⁴⁴ Colonel Wolseley, in particular, had this to say:

When looting is once commenced by an army, it is no easy matter to stop it. At such times human nature breaks down the ordinary

⁴¹ Ibid., 180.

⁴² Ibid. 195.

⁴³ Ibid., 197.

⁴⁴ Young-Tsu Wong, *The Imperial Garden Yuanming Yuan: A Paradise Lost*, (China Academic Library: Springer, 2016), 175.

trammels which discipline imposes, and the consequences are most demoralizing to the very best constituted army.⁴⁵

The “Perfect Brightness” of Burning

Although Prince Gong protested the looting to the Allied Command, it only further impressed the British and the French that the Qing court treasured the Yuanmingyuan a great deal. In fact, they had seen themselves how anxious the Manchu and Han Chinese officials were to reoccupy the garden upon the evacuation of the foreign troops. General Grant of Britain, for example, was now absolutely convinced that the Manchu emperor considered the Yuanmingyuan his “most important palace” (Knollys 1875, 204). This may help explain at least in part why the British eventually wanted to burn down the garden in order to pain the emperor.

The Allied Command threatened to shell Beijing if the gates were not opened on October 13. Hengqi’s negotiation with Parkes resulted in permitting the entry of 1,500 troops for each of the three nations, England,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to accompany their respective diplomats for treaty ratification. At noon, on October 14, Hengqi guided Elgin and an entourage of three to four hundred men, who would be lodged at the Imperial Academy (Guozijian), into the Desheng Gate plus over thousand cavalymen, who were stationed at the Anding Gate. The foreign flags flew atop all of the gates and the soldiers shouted in joy and glory.⁴⁶

The release of all European prisoners on October 15, however, gravely complicated the peace process because they told their horrible stories of their

⁴⁵ Ibid., 159.

⁴⁶ T. Weng, (1970), *Weng wengonggong riji* [The diary of the imperial tutor Weng Tonghe] (Vols. 20). 1925. Reprint (in 20 Vols.), 158.

imprisonment, not to mention that some of them did not return alive. Elgin at once declared that it was an “atrocious crime,” and he decided to deal with it severely.⁴⁷ When Prince Gong tried to set a date to meet with Elgin and Gros, there was no response until 2 days later when the allies bitterly raised the new issue of the mistreatment of the Europeans in Chinese prison. Besides demanding substantial cash compensation, amounting to 300,000 taels for Britain and 200,000 taels for France, Elgin specifically wanted to demolish the whole Yuanmingyuan. The destruction so as to redress the grievance, and this was non-negotiable. He was firm in his message to Prince Gong: unless the new demand was met on October 20, cash paid on October 22, and the treaty ratified on October 23, war would resume.⁴⁸

This sudden turn of events surely caught Prince Gong by surprise. On October 16, he was still outside of the city walls when the allies entered Beijing.⁴⁹ The allies had ignored the prince’s complaints about plundering the Yuanmingyuan and other royal demesnes; and now Elgin notified him in a haughty manner that the principal imperial garden as a whole should be burned down to the ground as punishment. The humiliation was huge and inevitable. Had he put up a stiff resistance and shown some courage, the prince might still have some bargaining chips to play; however, with Beijing having been occupied by the allies, he knew he was totally at the mercy of the enemy. He could only plead to Elgin, again through Hengqi, to spare the Yuanmingyuan. Nevertheless, Elgin was adamant, and on October 18 he waited no longer to give his order to set fire to the Yuanmingyuan and its subsidiary gardens.

Elgin made this crucial decision to burn down the Yuanmingyuan all by himself without French consent. In fact, Baron Gros disapproved of the violent vengeance against a peaceful estate; for him, if some palaces were to be destroyed, those in the Forbidden City, the center of administration, would

⁴⁷ Young-Tsu Wong, *The Imperial Garden Yuanming Yuan: A Paradise Lost*, (China Academic Library: Springer, 2016), 175.

⁴⁸ *Ibid.*, 178.

⁴⁹ Young-Tsu Wong, *The Imperial Garden Yuanming Yuan: A Paradise Lost*, (China Academic Library: Springer, 2016), 120.

make a better target than the harmless imperial garden. In his correspondence to the French, Elgin argued why he wanted to “make the blow fall on the Emperor, who was clearly responsible for the crime committed.” The “high crime” of ill treatment of European prisoners, in his opinion, could not be compensated merely by a large sum of money, nor could the Chinese government obtain additional “large pecuniary indemnities.” He would not demand the surrender of “the persons guilty of cruelty to our countrymen,” either, because he felt “throw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ts of Government in this way on individuals resembles too closely the Chinese mode of conducting war to approve itself altogether to my judgment.” Hence, he concluded that the destruction of the Yuanming Yuan was the “least objectionable” course open to him. He was fully aware of the fact that the imperial garden was the Xianfeng Emperor’s “favourite residence, and its destruction could not fail to be a blow to his pride as well as to his feelings”. The destruction of the Yuanmingyuan caused Xianfeng great pain.⁵⁰

Thus, Lord Elgin alone dictated the ultimate justice: the total destruction of the Yuanming Yuan. Apparently, as plenipotentiary, he made this crucial decision without the prior knowledge of his own British government and without regard for the opposition of his French ally. He wanted revenge against the Xianfeng Emperor (Walrond 1872, 366). The burning of the Yuanming Yuan had indeed caused the emperor great pain, but His Majesty died shortly afterward. The persistent pain is perhaps the loss of 150-year-old architectural wonder and garden beauty. But, for Elgin, his decision was not so harsh as it should have been. Originally, he had contemplated not only the demolition of all the palaces in and out of Beijing but also the abdication of the Manchu monarch Xianfeng.

⁵⁰ Ibid., 123.

The 40 Scenes



The three parts of the Yuanmingyuan, as well as the Joyful Spring Garden that preceded them, were considered to be gardens, hence the term yuan. Each consisted of a number of complexes containing buildings of various types, artfully arranged in a “natural” setting that was carefully designed with lakes and streams; hills, bridges, and pathways; and pagodas and the like. Each complex was meant to create a separate vista, while blending into a diverse whole. Unlike European palaces, where the building was the central focus, in this Chinese paradise the buildings—practically all singlestoried—were linked together, and formed just one part of the view. Altogether there were 650 “individually named structures” and 130 “formal views.” The total area was over 800 acres.⁵¹

Since all the Chinese buildings were made of wood, almost nothing remained of this vast paradise after the British and French troops set torch to the Yuanmingyuan in 1860. Virtually the only visual record of this imperial paradise is found in a set of paintings—the “40 Scenes” of the Yuanmingyuan—commissioned by the Qianlong emperor in 1744. Two court artists, Shen Yuan and Tangdai (a Manchu), and a calligrapher, Wang Youdun, undertook this work. The resulting album consisted of paintings on silk, one per page with calligraphy on the facing side. Each page measures 62.3 cm (24.5

⁵¹ Lillian M. Li,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Destruction, Looting, and Memory (1860-Present),” Accessed April 10, 2019. https://visualizingcultures.mit.edu/garden_perfect_brightness_03/ymy3_essay02.html.

inches) in height and width. Of the 40 Scenes, 12 were paintings of vistas newly created by Qianlong; the others were of sites created under Kangxi or Yongzheng. None of the buildings subsequent to 1744—in the Eternal Spring Garden (Changchunyuan) and Elegant Spring Garden (Qichunyuan)—are visually documented. The 40 Scenes were later copied into woodblock prints that were circulated among literati, but the original album was owned by the emperor himself.⁵² In 1860, it was seized by French troops, taken back to France, and held at the Bibliothèque Nationale, where it remains to this day. It is deeply ironic and tragic that the French not only burned down the Yuanmingyuan, but also stole the Emperor's own visual record of it.

The Struggle for Reconstruction

The burning of 1860 disfigured the Yuanmingyuan so much that the imperial garden was no longer fit for royal living. Troops and eunuchs, however, guarded the destroyed garden estate to keep out unauthorized persons. The newly ascended Tongzhi Emperor, together with the two dowagers, Ci'an and Cixi, escorted Xianfeng's coffin back to Beijing from Chengde. They all took residence inside the Forbidden City. They missed the pleasant garden life, and their memory was simply too fresh to forget. Tongzhi was born in the garden on April 27, 1856. The Dowager Cixi, the new emperor's biological mother, had her romance with the late Xianfeng Emperor in the garden. Many other members of the family had in mind the sad moments when they had the last breakfast in the garden with the late emperor before the hasty flight to Chengde. They, of course, remembered the agony of the late emperor when he heard the bad news about the looting and burning of the Yuanmingyuan.

⁵² Ibid.

The best remedy, of course, was to restore the Yuanmingyuan to its past glory. But given the persistent rebellions and the financial crisis derived from excessive military expenditures and war indemnities, even the Tongzhi Emperor himself felt uncomfortable to raise such an issue. Not until the autumn of 1867 did the censor Detai speak on behalf of the royal family. Knowing how empty the state treasury was, the censor recommended that they seek donations and contributions from individual households in the country. This was clearly a trial balloon. When the general response of officialdom was negative, the emperor quickly backed off in a decree dated September 16, 1867, denouncing the censor's idea as "inappropriate" and "ridiculous".⁵³ The censor's untimely proposal backfired. The court decided to exile him in the remote Manchurian frontier. He chose to commit suicide instead. Most likely, the royal family incited the censor to make the recommendation, and hence he felt betrayed and died in protest. Consequently, the garden remained in an appalling condition for many more years to come. Yuanmingyuan had eventually gone through the Boxer's Rebellion and Cultural Revolution that deconstructed the Yuanmingyuan even further.

Figure 1
Visitors Taking Snapshots in front of the Calm
Sea Hall (Haiyan Tang) Ruins



⁵³ Young-Tsu Wong, *The Imperial Garden Yuanming Yuan: A Paradise Lost*, (China Academic Library: Springer, 2016), 145.

The Yuanmingyuan Ruins Park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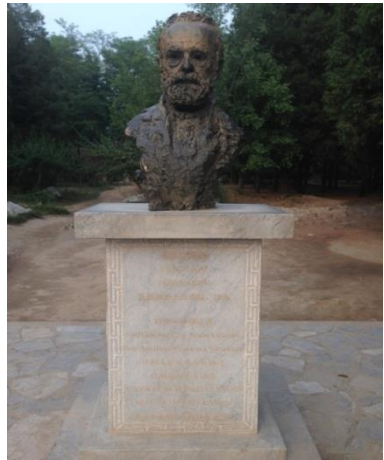
Over the years, as the Yuanmingyuan was repeatedly culled of its artifacts by both foreigners and Chinese, its grounds were turned into farmland and housed villages of farme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15 work units numbering about 270 people were located there. Under the constant urging of Premier Zhou Enlai, in 1988 the Fuhai Lake area and the European ruins were opened to the public, and in the 1990s some of the other gardens were developed into a recreational park, with its lakes available for boating, children's amusement, restaurants, tourist shops, and the like.

The European ruins are by far the area most visited and photographed. Most recognizable is the arch of the gate that formed the background for the Great Fountain (Dashuifa), with the ornate columns of the Yuanyingyuan on the hill above it. No tourist could fail to have his or her picture taken in front of these iconic ruins, and the many photographs and videos of Yuanmingyuan that now appear online convey the different uses and aspects of its restoration.

Conclusion

Significant scholarly work had been published involving the ruins of the larger Chinese sections of the Yuanmingyuan. For archaeologists, art historians, and historians, the importance of this work lies in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imagine the physical spaces of the grounds, the waterways, and the numerous buildings and compounds that comprised the original three

sections: the Yuanmingyuan, the Qichunyuan and the Changchunyuan. One major archeological site is that of the Hanjingtang, the complex on the island at the center of the Changchunyuan.⁵⁴ Rebuilding some of the original Yuanmingyuan buildings has been a subject of discussion for the last couple of decades. Apart from the expense, there are heated controversies about the need and the standards for reconstruction. Critics say that preservation is the goal, not restoration. In Beijing in general, academic specialists have been pitted against those government officials in the Cultural Relics Bureau and developers whose goal in historical preservation is not historical accuracy but the commodification of history for tourism. Many projects took place in the period prior to the 2008 Summer Olympics in Beijing. As a result, many historians and archaeologists, as well as local residents, have complained that the Yuanmingyuan has been developed principally as a tourist site and recreational park in a way that ignores its importance as a historical site worthy of study and possible restoration. Thus, it becomes questionable as to how we remember history and the places that encompass such changes, developments, and the passing of time. While the Yuanmingyuan remains as a product of a “clash of empires”,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s undermined by various other political and social inclinations.



⁵⁴ Lillian M. Li,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Destruction, Looting, and Memory (1860-Present),” Accessed April 10, 2019.

Bibliography

Alain Peyrefitte, *The Collision of Two Civilisations: The British Expedition to China in 1782-4*, Trans. Jon Rothschild. (London: Harvill, 1993).

Barme, Geremie.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 A Life in Ruins." *East Asian History* 11 (1996).

Danby, Hope.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 The History of the Yüan Ming Yüan and of the Emperors Who Lived There*. London: Henry Regnery, 1950.

Gao, Lei, and Marc Treib. "Making and Remaking the Yuanmingyuan." *Journal of Historic Preservation, History, Theory, and Criticism* 3, no. 1 (2006): 10-23.

Kissinger, Henry. *On China*. New York: Penguin Press, 2011.

Kutcher, Norman. "China's Palace of Memory," *The Wilson Quarterly* (Winter 2003).

Lee, Haiyan. "The ruins of yuanmingyuan: Or, how to enjoy a national wound." *Modern China* 35, no. 2 (2009): 155-90.

Li , Lillian M.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Destruction, Looting, and Memory (1860-Present)." Accessed April 10, 2019. https://visualizingcultures.mit.edu/garden_perfect_brightness_03/ymy3_essay02.html.

Liu, Lydia He. *The Clash of Empires: The Invention of China in Modern World Maki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Ringmar, Erik. *Liberal Barbarism: The European Destruction of the Palace of the Emperor of Chin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Walrond, T. (Ed.). (1872). *Letters and Journals of James, 8th Earl of Elgin*. London: John Murray.

Weng, T. (1970). Weng wengonggong riji [The diary of the imperial tutor Weng Tonghe] (Vols. 20). 1925. Reprint (in 20 Vols.), Taibei: Shangwu yinshuguan. Facsimile edition

Young-Tsu Wong. *A Paradise Lost: The Imperial Garden Yuanming Yu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YMYJ (Yuanming Yuan garden journals). Zhongguo yuanming yuan xuehui choubi weiyuan hui, ed. Beijing: Zhongguo jianzhu gongyi chubanshe. Vol. 1 (1981), Vol. 2 (1983), Vol. 3 (1984), Vol. 4 (1986).

Zou, Hui. *A Jesuit Garden in Beijing and Early Modern Chinese Culture*.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West Lafayette, Ind.: Purdue University Press, 2011